기업, 공시 위반땐 징역형

metro®

메트로 2015년 10월 7일 수요일 제3315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6일>

코스피 1990.65 (+12.40)

코스닥 689.06 (−2.13)

금리(국고채 3년) 1.58 (변동없음)

환율(원·달러) 1166.00 (−2.00)

## 지하철 스크린도어 95% 광고판 설치 논란

6일 오전 시청역 2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역사에 설치된 스크린도어 광고판 앞을 지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 광고에 막힌 지하철 탈출구

### 안전보호벽에 5800개 광고판
### 출입구로 인파 몰리면 압사 우려
### 망치로 못 깨는 스티커도 문제

### 광고판 철거땐 계약위반 소송
### 국민안전 담보 '돈벌이' 지적에
###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딜레마

지난 8월 말께 서울 강남역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계기로 스크린도어 광고판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비상문의 95%에 광고판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사태 시 스크린도어의 현재 출입구로 인파가 몰린다면 자칫 압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고를 피하려면 광고판이 설치된 보호벽까지 개폐식 비상문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와 함께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풀기 힘든 문제에 막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고판 철거에 나설 경우 계약 위반으로 광고업체가 소송에 나설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지하철은 9호선을 제외한 8개 노선의 277개 역사 중 95%에 달하는 264개 역사에 조명광고판이 설치돼 있어 비상 시 위험에 대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에 조명광고판이 설치되지 않은 역사는 2호선 신설동역과 7호선 장암역 등 12개 역사에 불과하다.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1~4호선의 경우 120개 역사 중 119개 역사에 2622개의 조명광고판이 안전보호벽에 설치돼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행하는 5~8호선은 157개 역사 중 145개 역에 3180개의 조명광고판이 설치돼 있다. 조명광고판은 아니지만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문에 스티커식의 비조명광고가 부착된 경우도 문제다. 비상 시 망치로 깨고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2호선의 서울대입구역, 봉천역, 신림역, 신도림역과 3호선의 홍제역, 독립문역 등 13개 역사를 우선 선정해 조명판과 고정문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출퇴근 시간에 3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승강장이 30개 이상으로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역사들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연말까지 홍제역과 독립문역을 먼저 시범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나머지 11개 역사는 내년에나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다.

나머지 200여개의 역사들은 언제 개선될지 알 수 없다. 이 의원은 "비상시 탈출이 불가능한 설비를 즉각 개선돼야 한다"며 "소요 재정의 부담을 놓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의를 해야 하고, 광고판 철거에 따른 위약금 부담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정문 전체를 교체하는 비용은 약 5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지하철 안전과 관련해 노후설비 교체와 스크린도어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상왕십리 열차 추돌사고와 올해 강남역 사고로 현안으로 부상한 문제들이다. 서울시는 우선 노후설비 교체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스크린도어 문제도 간과하지 못하고 있다.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 지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가 있다. 서울시 담당자는 "필요한 예산은 노력하면 어떻게든 마련하겠지만,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지하철 운영업체가 스크린도어 운영업체와 맺은 계약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진짜 난제"라고 말했다. 소송전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다.

지하철 운영업체와 스크린도어 운영업체 사이의 계약은 현재 안전문제와 함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변재일 의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역사 스크린도어를 운영하는 유진메트로컴과 2004년 22년 장기계약을 맺었다. 당시 유진메트로컴은 2호선의 강남역, 교대역, 삼성역, 선릉역, 사당역 등 알짜 역사의 스크린도어 독점 운영권을 따냈다. 이로 인해 유진메트로컴은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메트로 간부들은 계약 이후 유진메트로컴으로 자리를 옮기며 유착 의혹을 자초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 "亞, 제2 외환위기 온다" 월가, 신흥시장에 경고

신흥시장은 지금 하강 시작 단계로 1997년의 외환 위기 때와 매우 흡사하다는 경고가 월가에서 잇따라 나왔다.

이런 경고는 신흥국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진단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파이낸셜타임스(FT) 분석, 그리고 역내 회사채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도 커진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와 때를 같이하는 것이다.

블룸버그가 5일 전한 월가 헤지펀드 포트레스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지난달 30일자 투자자 보고서는 지난 6월 시작된 신흥시장 자산 투매가 최소한 2017년 3월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과거의 순환을 토대로 지금의 상황을 분석했다며 "우리 판단은 (신흥시장이) 다음번 반대(위축을 의미) 순환의 시작 단계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이클은 1997~1998년과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 불균형의 신흥국 측면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한다"고 덧붙였다.

### WSJ·파이낸셜타임즈 등
### 1997년 상황과 흡사 지적
### 투자 다변화 위험분산 권고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과거 순환 상황을 근거로 할 때 18개월 이상이 될 이 국면에 진입한 지 3주가 됐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신흥시장 위기 재발 경고가 또 다른 투자회사들로부터도 나왔다고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7%의 수익률을 기록한 포럼 자산운용의 레이 바크라모프는 신흥시장 위기가 4년여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지금의 상황이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시작 때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레이 달리오는 블룸버그에 신흥시장 손실이 1980년대와 1990년대 위기 때보다 더 확산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보다 역내에 더 많이 투자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포레스트 보고서는 또 중앙은행의 양적완화가 막판 단계라며 그간의 사례로 볼 때 이것도 하강장 신호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18~24개월의 시황이 "거칠 것"이라며 특히 미국 대선 탓이 크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지금은 투자 다변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할 때"라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 국제금융협회(IIF)도 지난 1일 낸 보고서에서 올해 신흥국이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자금 순유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 규모는 5400억 달러(약 637조 원)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3분기 신흥국의 증시 손실이 4조 3000억 달러에 달한 것과 때를 같이 한다고 블룸버그는 강조했다. /송시우 기자 swsong@

## Japan, failure of humanitarian action for their political greed?

### 日, 정치 야욕에 인도주의 버렸나

Japan's Shimane, that passed a bill to designate Feb. 22 as 'Takeshima Day' as a provocation about Dokdo issue, recently published a report commenting on Saewallho disaster.

There has been growing criticism because what they did is ignoring humanitarianism for their political greed.

Those comments about Saewallho disaster are in supplement of 'The 3rd research study report' published by Takeshima research council.

This supplement was published to criticize '100answers to 100questions about Dokdo issue' by Dokdo historical source research society. '100answers to 100questions about Dokdo issue' was published to criticize '100answers to 100questions about Dakeshima issue'. Yamasaki Yoshiko, who wrote '100answers to 100questions about Dakeshima issue', links Dokdo issue and Saewallho disaster in the supplement.

Arguments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Dokdo has finally created these issues.

Yamatani Erico, the head of territorial issue in Japan, said "I am going to advertise the Takeshima issue at home and abroad" after the submission of the report in August.

After it became a big issue, the Korean government that were aware of the report said "we do not need to respond to all those provocations made by local government of Japan."

2005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날' 조례를 지정해 독도 도발의 선봉에 선 일본 시마네현이 최근 펴낸 독도 관련 보고서에서 독도판 세월호 참사를 운운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도주의 마저 무시한 처사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내용은 일본 시마네현다케시마문제연구회(이하 연구회)의 '제3기 조사연구 최종 보고서' 중 부록에 담겼다. 이 부록은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의 '독도문제 100문100답'을 비판하기 위해 작성됐다. '독도문제 100문100답'은 앞서 나온 연구회의 '다케시마문제 100문100답'에 반박하기 위해 나왔다. '다케시마문제 100문100답'을 작성했던 연구회의 야마사키 요시코는 이번 부록에서 독도와 세월호 참사를 연결 지었다. 한국과 일본이 독도를 사이에 두고 논쟁을 주고 받다 결국 사단이 난 것이다.

지난 8월 이 보고서를 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야마타니 에리코 일본 영토문제담당상은 "국내외에 다케시마 문제를 강력하게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영사관을 통해 보고서 내용을 알고 있던 우리 정부는 뒤늦게 보고서 문제가 불거지자 "지방정부 수준에서 도발하는 것에 일일이 반응하며 말려들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 사회

▲ 

6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로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며 보석을 신청한 **원세훈** 전 원장의 보석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 6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다.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렸다.

▲ **서울대 로스쿨** 학생 10명 중 7명이 자교 출신인 반면 지방대 출신은 0.5%대로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3년부터 올해까지 **일반대학원 입학자** 중 15%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정치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이 공시 규정을 위반하면 징역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위성 발사는 자주국의 당연한 권리"라면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혀 온 **북한**이 조용하다. 노동당 창건 70주년(10월 10일)을 나흘 앞둔 6일 북한은 자축 분위기로 떠들썩할 뿐 미사일 발사 조짐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추진 중인 새누리당은 "검정교과서 종수는 겉치레일 뿐이고, 실상은 다양성 가면을 쓴 한 종류의 편향성 교과서와 마찬가지"라며 역사학계에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두고 독일 나치의 선전장관인 괴벨스나 미국의 매카시라고 비유하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 국제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기회를 가져 올 것이다.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며 "일본이 협상을 주도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자축했다.

▲ 신흥시장은 지금 하강 시작 단계로, 1997년의 외환위기 때와 매우 흡사하다는 경고가 미국 뉴욕의 월가에서 잇따라 나왔다. **제2의 아시아 외환위기**에 대한 경고다.

▲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납치된 이라크 소수민족 야지디족 여성들이 인신매매와 성폭행을 견디다 못해 수백명이 자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디지털 혁신을 외치며 전세계 언론에 새로운 화두를 던졌던 미국의 **뉴욕타임스**(NTY)는 온라인으로만 자사 기사를 보는 유료 구독자의 수가 100만명을 최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그림 사볼까** 2015 한국국제아트페어(KIAF)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본 전시 전 오프닝 데이 행사를 연 가운데 한 시민이 미술품을 관람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아트페어는 주빈국인 일본 등 11개국, 182개 갤러리가 참여해 4000여점의 미술품을 전시, 판매한다. /뉴시스

## 산업·경제

▲ 

미국과 일본 등 12개 회원국이 참여해 세계 최대 단일 자유무역지대를 표방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체결됐다. 한국이 빠진 TPP 협상이 타결되자 국내 주요 기업들의 수출 전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일본과 중국, 동남아 등 단거리 노선에 이어 중장거리 노선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나섰다.특히 미국 하와이와 일본 오키나와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명소로 눈을 돌리는 모양새다.

▲ 국내 **폴크스바겐**·아우디 차주들이 단단히 뿔났다. 최대 1만2000명이 넘는 폴크스바겐·아우디 차주가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소송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 **삼성전자**가 글로벌 '넘버 원' 반도체 기업에 한발짝 더 다가서고 있다. 3차원(3D) 낸드와 시스템반도체, D램 '삼각 편대'를 앞세워 미국 인텔과의 격차(1.6%p)를 근소하게 좁히며 정상을 향한 맹추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 백화점·마트·면세점 등 롯데그룹 유통계열사들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판 키우기에 나섰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유통마진을 줄여서라도 소비자들에게 좋은 제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 신도시나 대형 택지지구 인근에 있는 **신규 아파트**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형 택지지구는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있지만 인근 아파트는 주목도가 낮아 아파트값이 저렴한데다 개발호재도 풍부하기 때문이다.

▲ 소셜커머스 기업 **티몬**이 재택근무제도 '언터처블데이', 단기휴가제도 '슈퍼패스' 등 일과 가정을 양립하게 해주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며 최고의 직장으로 꼽히고 있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일 열린 국정감사 자리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당분간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NH투자증권**이 과거 NH농협증권 시절 농협중앙회와 금융 지주 출신의 소위 '농피아' 인사의 방만 경영으로 최대 10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의 △입원 보장기간 후 90일간 보험금 미지급 제도 개선 △산재보험 보장범위 확대 △중복 가입자 피해구제 마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추격자 삼성 '반도체공룡' 인텔 넘어서나

### 3D 낸드·시스템반도체·D램 경쟁력 강화
### 인텔과 1.6%p 격차… 반도체 1위 도약 기대

삼성전자가 글로벌 '넘버 원' 반도체 기업에 한발짝 더 다가서고 있다. 3차원(3D) 낸드와 시스템반도체, D램 '삼각 편대'를 앞세워 미국 인텔과의 격차(1.6%p)를 근소하게 좁히며 정상을 향해 맹추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6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차별화된 집적화와 미세공정 기술을 앞세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는 삼성전자 반도체가 내년에 더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D 낸드와 시스템 반도체 등의 경기 회복이 예상되면서다. 일각에서는 인텔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까지 하고 있다.

이세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3D 낸드와 시스템 반도체의 역량 강화가 본격화되면 반도체 1위 업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 삼성전자는 인텔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IHS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글로벌 반도체 시장(메모리·비메모리 종합)에서 삼성전자는 103억66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려 시장 점유율 12.0%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출 117억9700만 달러를 올린 인텔의 점유율은 13.6%였다. 삼성과 인텔의 점유율 격차는 1.6%포인트에 불과하다. 양사의 격차가 1%대로 좁혀진 것은 처음이다.

3D 낸드가 적용된 삼성전자의 SSD.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반도체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업체들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다.

우선 삼성전자는 3D 낸드 공정을 32단에서 48단으로 전환하고 있다. 현재 유일하게 3D 낸드를 양산하는 삼성전자의 48단 공정이 본격화 될 경우 원가를 30%이상 낮출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에는 64단까지 효율을 높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삼성전자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는 14나노 핀펫(FinFET) 공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메모리 미세공정 노하우를 활용해 10나노 공정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10나노급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삼성전자와 인텔, TSMC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몽구스 프로젝트로 알려진 자체 시스템 반도체의 설계도 진행하고 있다.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7 이후부터 삼성전자는 자체 설계 프로세서를 탑재해 성능 최적화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 정상을 지키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삼성전자는 지배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DDR4 공정을 20나노 공정에서 10나노급 공정으로 전환해 원가 경쟁력을 지속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고용량 DDR4램은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고성은 모바일기기에 탑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

# "자동차·전자 등 핵심 산업 영향 미미 할 것"

**TPP타결, 산업계 영향은**

**미국과 일본 등 12개 회원국이 참여해 세계 최대 단일 자유무역지대를 표방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체결됐다. 한국이 빠진 TPP 협상이 타결되자 국내 주요 기업들의 수출 전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TPP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산업은 전기·전자(IT) 와 자동차 관련 업종 정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日 車부품·가전·반도체장비 관세 혜택
### 한국도 한미FTA로 내년부터 철폐돼
### "현지화·차별화로 대응… 타격 적을 듯"

핵심 쟁점은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이다. 당장 일본이 자동차 부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붙었던 관세 2.5%가 철폐된다. 상대적으로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일본과 경쟁하는 국내 자동차 완성업체들과 부품생산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면 한미 FTA와 현지화 전력 등에 힘입어 영향이 미미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 12개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10개국과 FTA가 체결돼 있어 TPP 가입은 한일 FTA 체결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과 체결한 FTA 덕에 일본보다 관세 측면에서 유리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TPP가 체결되면서 일본 역시 관세율에서 한국과 비슷한 혜택을 받게 됐다. TPP 발효 즉시 일본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차 부품의 최대 82%에 대해 2.5% 관세가 철폐된다. 바퀴, 안전벨트 등 100개의 자동차 부품이 이 같은 관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입장에서는 연간 5000억원 규모의 관세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일본 자동차 부품의 관세가 철폐되면 일본에서 미국으로 직수입하는 자동차의 가격이 내려간다는 점도 국내 완성차 업계에 단기적으론 악재다. TPP 참여국인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서 만든 차 부품은 일본 국내산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일본 회사들은 완성차를 TPP 타결 이전보다 싸게 만들 수 있다.

반면 영향이 없다는 측의 의견도 설득력이 있다. 애초에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자동차 부품이 많지 않은 데다 한국은 내년부터 관세 없이 미국에 자동차와 부품을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TPP에 가입하지 않아도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경우 한·미FTA 타결로 2016년부터 2.5%의 관세가 0%로 철폐된다. 자동차 부품은 이미 관세가 철폐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베트남과 캐나다 등이 완성차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한국은 이미 FTA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오히려 TPP에 가입하면 일본 자동차 부품과 일본 완성차가 국내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전문가도 있다.

수출 대기하는 차량으로 꽉 찬 현대글로비스 평택항 선적부두.

IBK투자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미국과 멕시코 등에 이미 한국 완성차와 부품 업체들이 동반 진출해 있기 때문에 실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 자동차의 선두주자인 현대·기아차의 미국 공급량 가운데 현지 생산 비중이 현대차는 53%, 기아차는 47%에 이른다. 내년에 기아차 멕시코 공장이 가동되면 현지화 비중이 더욱 높아진다. 일본 자동차의 관세 철폐가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이승재 흥국증권 연구원은 "완성차의 경우 국내는 내년부터 미국 수출 관세가 철폐 되지만 일본은 30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될 가능성이 높아 아직은 국내 업체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 부품은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일본산 자동차 부품의 경우 관세 철폐 범위가 50%에서 80%로 확대됐지만 변속기와 기어박스 등 미국 기업이 보호하는 핵심 부품의 관세는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당장 철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국내 완성차 업계는 현지화전략이 자리를 잡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는데 너무 앞서 호들갑을 떠는 경향이 있다"며 "실제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이나 다름 없는데 실효성을 따져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겠으나 TPP로 인해 우리나라가 선점했던 한미FTA 효과가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라면서 "국내 완성차업계가 불리해지는 측면이 다소 있어보이지만 나름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기·전자(IT) 관련 업종도 타격도 미미할 것이란 의견이 많다. TPP가 발효되면 기존 7~8% 관세가 붙던 일본 생활가전 제품과 반도체 장비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한국산 IT·전자기기의 글로벌 경쟁력이 확고해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관계자는 "TPP협정 체결국에 포함된 일본산 전자제품에 어느 정도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스마트폰 등 우리의 ICT 수출 주력 품목의 경우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관세가 철폐된 상태여서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가 조속히 TPP 협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이나 다름 없는데 2차로 참여해 실익이 있겠느냐는 의견등이 분분하다.

이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TPP 참여 시 협정 발효 10년 후 국내 실질 GDP가 1.7~1.8% 증가하지만 불참하면 0.12%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무역협회도 "TPP 가입국들은 우리나라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기준 32.4%(3553억달러)에 달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TPP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이제 TPP 가입 여부에 대해 결단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주장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TPP 협정을 맺은 12개 국가 중 10개 국가가 이미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맺었다"면서 "TPP에 속해 있는 국가 대부분에 생산기지를 구축해놓았기 때문에 관세 등 영향이 적다"고 설명했다.

전자업계의 경우 TPP보다도 엔화 및 위안화 대비 원화 강세에 대응하기 위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고기능 제품 마케팅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종훈 기자 fun@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 | |
|---|---|
| 발행·인쇄인 | 남궁호 |
| 대표이사 편집국장 | 이장규 |
| 광고문의 | 02)721-9851,3 |
| 독자센터 | 02)721-9861 |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 저비용항공사 "세계 휴양지를 점령하라"

LCC 취항경쟁 2라운드

## 진에어, 12월 호놀룰루 취항 제주항공, 오키나와 운항시작

## 이스타·티웨이항공도 신규취항 통해 틈새 공략

제주항공 B737-800 여객기.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일본과 중국, 동남아 등 본토 단거리 노선에 이어 중장거리 노선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영토경쟁에 나섰다.

특히 미국 하와이와 일본 오키나와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명소로 눈을 돌리고 있다.

6일 각사에 따르면 진에어는 인천-호놀룰루 노선을 오는 12월 19일 취항한다.

진에어는 중대형 항공기인 B777-200ER 기종을 해당 노선에 투입해 주 5회 운항한다.

국내 LCC 대부분은 최대 6~7시간 운항이 가능한 180~190여석 규모의 중단거리 여객기를 주력 기종으로 보유하고 있다.

진에어는 지난해 말 국내 LCC 최초로 미주와 유럽까지 운항할 수 있는 300여석 규모의 B777-200ER 항공기를 도입했다.

올해 7월 B777-200ER 2호기를 추가 도입한 진에어는 연말까지 해당 기종 3호기를 들여와 중장거리 노선에서 우위의 경쟁력을 점할 계획이다.

진에어는 올 12월 필리핀 보라카이와 베트남 하노이, 태국 푸켓 노선 3곳에도 신규 취항한다.

푸켓에는 B777-200ER을 투입한다.

사측은 B777-200ER 도입에 이은 연말 하와이 취항이 국내 LCC 업계가 장거리로 넘어가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애경그룹 계열의 국내 최대 LCC 제주항공은 7번째 부산발 국제선인 오키나와 노선에 이달 27일부터 운항을 시작한다.

주 3회 일정의 부산~오키나와 노선 신규 취항을 기념해 사측은 7일부터 13일까지 해당 노선 특가항공권을 판매한다.

다음 달 초 상장을 앞둔 제주항공은 1265억~1540억원으로 예상하는 공모 자금을 지속성장이 가능한 사업역량 확보 차원에서, 기단 확대와 엔진 구매 등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제주항공이나 진에어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LCC들도 신규 노선 개척을 통한 틈새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이달부터 대구~괌 정기노선 운항을 개시했다.

해당 노선은 B737-800(186~189석) 기종으로 오사카를 경유해 주 3회 운항한다.

이스타항공 역시 제주~방콕 노선의 주 7회 정기운항을 이달 시작했다.

해당 노선 취항을 위해 2013년부터 300여편의 부정기편을 운항해 평균 98%의 탑승률을 기록하며 정기편을 준비했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김정식 이스타항공 대표는 "LCC 최초로 취항한 제주~방콕 정기노선은 제주도민과 동남아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항공여행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제주도와 아세안 지역을 잇는 하늘길을 넓히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성진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여름 정체됐던 LCC의 성장이 올해 만회되면서 메르스 바람에도 LCC 승객은 빠르게 증가했다"며 "저가항공수요의 확산, 단거리 여행 지역 통화 대비 절상된 원화 등이 LCC에 유리한 상황이다. 또 유가가 낮아지면서 신형 항공기와 LCC가 운용하는 중고 항공기의 연비경쟁력 차이가 좁혀질 것으로 보이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정필 기자 roman@metroseoul.co.kr

이슬람국가(IS)에 고통받는 야지디족 여성들. /연합뉴스

# IS, 반인륜 최악의 상황으로

## 야지디족 여성들 자살행렬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납치된 이라크 소수민족 야지디족 여성들이 인신매매와 성폭행을 견디다 못해 수백명이 자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CNN의 6일자 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야지디족 출신인 아미나 사이드 하산 전 의원은 이 방송에 나와 "IS에 납치돼 수차례 인신매매와 성폭행을 당한 야지디족 여성들이 구출될 것이라는 희망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납치된 여성들로부터 매일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자살한 소녀들의 사진도 봤다"며 "구출 요청 전화를 걸어오는 이들은 '더는 나빠질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연락해온 여성 가운데 소식이 끊긴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치된 여성들이 겪은 일을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다. 언제 구출해줄 수 있느냐고 묻는 말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정부도 아닌 보통 사람일 뿐이어서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하산 전 의원은 이라크 북부 신자르 출신이다. 이 곳에서는 1년 전인 지난해 8월 IS의 잔혹한 학살이 벌어졌다. 그의 친척과 이웃 상당수가 당시 IS에 납치됐다. 그는 IS에 납치된 야지디족 여성 구출 활동을 벌여 수백 명을 구했다. 붙잡힌 이들이 하산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오면 그의 남편 칼릴 이라크와 시리아 국경지대로 가서 안전한 곳으로 빼내온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지난 7월 미국 국무부의 연례 인신매매 실태(TIP) 보고서 발표식에서 '인신매매와 싸우는 영웅'으로 뽑히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IS에서 벗어나 다시 자유를 찾는 경우는 소수이며 여전히 많은 야지디족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의 도움으로 탈출한 야지지족 여성들의 증언에 따르면 IS는 납치한 여성들을 화물차에 짐짝처럼 실어 알 수 없는 곳으로 끌고간다. 이들은 노예처럼 팔려가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며 살해되는 경우도 있다.

/송병형기자

# '미사일 발사예고' 북한이 조용해졌다

## 美 "발사 움직임 안보여" 당 창건기념 열병식에 몰두

위성 발사는 자주국의 당연한 권리라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혀 온 북한이 조용하다. 노동당 창건 70주년(10월 10일)을 나흘 앞둔 6일 북한은 자축 분위기로 떠들썩할 뿐 미사일 발사 조짐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날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지난달 27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동창리 발사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최근 위성사진에는 어떤 발사 준비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위성사진에서 발사장의 조립대에는 미사일이 발견되지 않는다. 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연료와 산화제를 저장한 시설들 주변에는 움직임이 없다. 과거 전례를 감안하면 오는 10일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최소한 4~6주 전부터 발사 준비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물리적으로 미사일 발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북한 담당 미 국무부 관리 출신으로 38노스를 운영하고 있는 조엘 위트는 "오는 10일에 맞춰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한다는 가능성에 대한 모든 보도는 잘못됐다. 그 어떤 가능성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며 "현 상태로는 북한이 오는 10일에 맞춰 로켓 발사를 위한 준비를 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북한 대동강에서 종합봉사선 '무지개'호가 개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촬영한 사진을 보도했다. /연합뉴스

다만 북한이 올해 안에 미사일 발사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하다. 위성사진에는 미사일 발사 시설을 보다 큰 규모로 증축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북한은 현재 당 창건일 기념 열병식 준비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이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세계적 판도에서 조선 노동당 창건 70돌을 성대히 경축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며 열병식 준비 상황을 자세히 소개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리는 경축행사를 성대하게 꾸미기 위해 몇달 전부터 준비한 행사에 대한 최종 리허설에 들어갔다. 학생들을 대거 동원한 집단체조도 막바지 최종 점검에 들어갔으며 횃불행진, 화려시범 등 각종 이벤트도 공연 준비를 마친 상태다. 특히 북한판 걸그룹인 모란봉악단과 최근 창단한 청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등을 총출동해 오는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대규모 축하 공연도 거행한다. 러시아 군악대도 참가한다.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는 전날 사진전 '위대한 승리, 빛나는 계승의 70년', 평양체육관에서는 미술전 '어머니당에 드리는 축원의 화폭'이 열렸다. 대동강에는 1230여명의 손님을 태울 수 있는 초호화 유람선 '무지개호'가 전날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유죄판결을 받은 주민에게 대한 대사면, 전체 군인과 주민들에게 월 생활비의 100%에 해당하는 특별 격려금 지급 등 각종 시혜적 조치들도 실시해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송병형 기자 bhsong@

# 공정위 "대기업 공시 위반 땐 징역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국감

롯데, 16일까지 지배구조 자료 안내면 1억 이하 벌금
4대 대기업 대상 '일감 몰아주기' 의혹 직권조사도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이 공시 규정을 위반하면 징역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1억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하도록 돼 있어 재벌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6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종합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이 공시 규정을 위반하면 징역형까지 물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는 롯데에 해외 계열사의 주주현황, 임원현황,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주식소유현황과 증빙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롯데그룹의 자료제출 마감기한은 오는 16일까지다. 이날까지 롯데그룹이 공정당국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재벌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의 발언은 이에 대한 답변의 성격이다.

**◆ 공정위, 한화 전 계열사로 일감 몰아주기 조사 확대**

이날 정 위원장은 한화S&C로 시작된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한화 전 계열사로 확대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한화증권이 한화S&C를 통해 전산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전산시스템통합 업체인 한화S&C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 가운데 52% 정도인 2100억원 가량이 계열사 내부거래로 발생했다.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한화S&C는 한화그룹 경영권승계의 핵심이다. 일감 몰아주기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세금 한 푼 없이 수조원대의 상속·증여와 경영권 승계의 수단이 되느냐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한화S&C는 현재 예비조사 단계에 있다. 확인되는대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김 의원이 "(공정위가)한화그룹 전체의 일감 몰아주기를 조사하겠다고 한 만큼 한진그룹의 경우도 싸이버스카이 조사 과정에서 정석기업, 유니컨버스 등 그룹 전반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한화S&C 이외에 일감 몰아주기 조사 중인 대상에 "기존에 한진, 현대, 하이트진로 등 4개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조사해 법률 검토 중이다. 40개 대기업 집단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포털의 문어발식 사업확장, 독점일 수 있다"**

정 위원장은 다음카카오의 콜택시 서비스인 '카카오택시' 사업에 대해서는 카카오택시가 나중에 시장을 독점하고 가격을 크게 올릴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택시의 시장 독점 문제를 제기한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다음카카오가 콜택시 업계에 진출한 후 해당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상민 의원은 "네이버가 정보유통업자로서 콘텐츠를 매우 싸게 구매하고 이를 통해 폭리를 취하며 정보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제한하고 있다. 포털업체가 뉴스와 콘텐츠를 미끼상품으로 활용해 부과수익을 내고 있다"며 포털업체의 사업을 정보유통업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법과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그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못해봤다. 다만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 고액체납자 70만명 체납액 8조원

### 징수율 10%에도 못미쳐

70만명이 8조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징수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고액체납자는 69만1292명, 체납금액은 7조816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372명, 체납금액은 1조9803억원이었다. 체납액 1억~10억원은 7161명, 1조5599억원이었다. 체납액 5000만~1억원 체납자는 1만3012명에 8916억원, 1000만~5000만원은 9만9414명에 2조1083억원, 1000만원 이하는 57만1333명에 1조2759억원이었다. 고액체납자는 체납액과 체납기간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자체 분류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2012년 2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신설해 운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현금징수와 재산압류 등 실제 징수 또는 재산 확보 실적은 무한추적팀 신설 다음해인 2013년 급증했다가 지난해 이후 줄어들고 있다.

고액체납자의 징수금액과 징수율은 2012년 7565억원, 12.8%에서 2013년엔 1조5638억원, 23.9%로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징수금액이 1조4028억원, 징수율이 17.9%로 떨어졌다가 올해는 상반기까지 7104억원, 9.1%에 머물고 있다.

오 의원은 "고액체납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낮아지는 것은 조세정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성실납세자의 사기를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전담팀 인력을 보강하고 정보를 집중해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완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고액체납자의 징수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고액체납자 전담팀 인력은 지난해 212명에서 올 6월말 현재 121명으로 전년대비 절반 이상(57.1%) 감축됐다"며 "전담팀 1인당 관리체납자가 5.2명에서 25.8명으로 5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집필진, 특정이념 추구"

### 역사학계 싸잡아 비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교과서를 추진 중인 새누리당이 역사학계 전체를 비판하고 나섰다.

6일 원유철 원내대표는 "역사 교과서가 검정제도로 바뀌고 나서 편향성 논란에 휘말린 근본 원인은 집필진 구조에 있다. 집필진 다수가 공정성, 균형성, 역사관을 의심하기 충분한, 특정 이념을 추구하는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끼리끼리 교과서를 만들고 출판사를 넘나들며 회전문 집필을 하고, 새로 교과서 집필할 때마다 매번 참여해 만들고 있다. 2011년 교과서 집필진은 37명이었고 2014년엔 28명으로 줄었고 이들 특정 집필진이 한국사 교과서를 독과점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더 심각한 것은 편향성 논란의 진원지인 근·현대사 분야의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 7종의 근현대사 분야를 28명이 집필했는데 그중 18명이 특정 이념에 경도된 사람들이다. 이적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전교조 출신이 10명이나 된다"며 "전교조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정교과서 종수는 겉치레일 뿐이고, 실상은 다양성 가면을 쓴 한 종류의 편향성 교과서와 마찬가지"라고 했다.

한국사 집필을 특정 집단이 장악했다는 주장이다. 전날 김무성 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김 대표는 "이제 역사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가 됐다. 그 첫걸음이 바로 한국사 교과서의 변화"라며 "역사학자 90%가 (이런 변화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역사학계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일성의 유일지배 확립 과정, 수령의 개념, 유훈통치, 선군정치, 사회주의 강성 대국론 등을 학습하게 하는 등 우리 아이들에게 대체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학생들이 왜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워야 하느냐"며 "이게 대한민국 역사교과서의 현실이다. 이것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송병형 기자

## 필리핀, 한국인 연쇄 피살에 정부 '비상'

필리핀에서 한국인의 죽음이 잇따르자 정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외교부는 8일 서울에서 필리핀 한인회 관계자들과 필리핀 경찰 내 '코리아 데스크'(한인사건 전담반)에 파견된 우리 경찰관, 검경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긴급 민관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찰 파견 인력 증원과 한인 밀집지역에 CCTV 추가 설치 지원 등과 같은 대책 마련이 예상된다.

현재 필리핀에는 4명의 우리 경찰 주재관(마닐라 주재 한국대사관 3명, 세부 분관에 1명)이 파견돼 있다. 필리핀 경찰청 내 '코리아 데스크'에는 2명의 경찰이 나가 있다. 또 마닐라 외곽 한인 밀집지역인 말라테에 한인파출소 한곳이 운영되고 있고, 중부 관광도시 앙헬레스 지역의 코리아타운에는 총 5개 장소에 17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여기에 더해 필리핀 경찰청과 우리 대사관이 2010년부터 운영해 온 한인사건 종합대책회의가 있다. 한인회와 유학생 대표들은 안전대책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송병형 기자

## 서울대 로스쿨, 65% 자교 출신

### 지방대 출신 0.5%대

서울대 로스쿨 학생 10명 중 7명이 자교 출신인 반면 지방대 출신은 0.5%대로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2009~2015 로스쿨 입학생 출신 고교, 대학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입학생 1073명 중 702명(65.5%)이 서울대 출신이다. 뒤를 이어 고려대가 138명(12.9%), 연세대가 98명(9.1%) 순이었다.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9명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스카이(SKY)' 출신인 셈이다. 미국 명문대 출신도 2.9%(31명)이었다.

그러나 지방대 출신은 전체 입학생 중 5명(0.5%)에 불과했다.

출신 고교에서는 서울과 강남 편중이 나타났다. 서울 출신 고교가 538명으로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인 50.1%를 차지했다. 특히 입학생 15.6%(167명)의 출신고교가 강남 3구인 강남, 서초, 송파구에 집중돼 있었다. 반면 특별전형 입학생과 가계곤란 장학금은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전형 입학생은 2014년 6.5%에서 2015년 5.9%로 줄었고 장학금은 2012년 2학기에는 443만원에서 2015년 1학기 382만원으로 감소했다.

특히 가계곤란 장학금의 평균액은 2012년 2학기 523만원에서 2015년 1학기에는 386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유 의원은 "특정 대학·전공에 쏠린 사법부 획일주의 탈피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도록 서울대는 특별전형 선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장학금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미란 기자

# 줄줄 새는 '국고보조금'

**이한성 의원 국감자료**

### 유령 회사 만들어 지원금 편취 장애수당·근로급여도 가로채

정부가 주관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A씨는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후 허위로 용역을 발주, 거래처와 공모해 발주금액과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26억여 원을 편취했다.

한 복지재단 이사장은 허위 자료를 작성해 보조금 4억5000만여 원을 지원받아 이 중 4억2000만 여원을 횡령했다. 이 이사장은 입소한 장애인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장애수당·개인소유 금전과 근로급여 등 2억3000만여원 등 총 11억 6000만원을 빼돌렸다.

이처럼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정수급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정수급에 국민 혈세 540억여 원이 무분별하게 사용돼 철저한 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사진)이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건수는 591건에 이른다. 환수 추정 액은 540억원에 육박한다.

부정수급은 ▲발주금액 허위정산 ▲미참여 연구원 등재 후 인건비 허위정산 ▲사업정산서 허위작성 ▲입·출항 신고서 허위 작성·청구·매출전표 발행 ▲대학의 산학협력사업 육성사업 허위지표 제출 ▲체육단체의 행사참여인원과 행사비 부풀리기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등 보육교사 허위등재 ▲장애인 통장관리 ▲예비사회적 기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허위신고 ▲근로시간·급여내역 허위작성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갖가지 수법을 통해 편취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 의원은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 피해자가 없는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별 다른 죄의식 없이 부당편취가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별적 편취금액은 곶감 빼먹기 식이지만 총계는 결코 적지 않아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 철저한 수사와 함께 편취금액 환수와 편취결과를 유관 기관에 통보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경기도용역노동자 처우개선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상여금 400% 지급을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고용부,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 실업급여 年 496만원 → 643만원

### 수급요건은 더 깐깐해져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올라가고 지급기간도 늘어나지만, 지급요건은 더 엄격해진다.

6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다.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렸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노동개혁 5대 법안의 하나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급수준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 3000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 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으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다만, 하한액은 올해 수준인 하루 4만 176원을 보장했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급여 적용도 확대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된다. 같은 사업·장소에서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는 소속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재고용'으로 간주돼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업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년층 경비·청소 근로자 중 연 1만 3000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한 잦은 이직이나 반복 수급 등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철저히 감독한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용센터에서 증명받는 '실업인정' 주기는 통상 4주이나, 이들은 1~2주로 단축된다. 구직활동은 2주 1회 이상에서 1주 1회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직업지도나 훈련 지시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은 최장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난다. 반복 수급자가 훈련 지시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최대 30%까지 깎는다.

/유선준 기자 rsunjun@

# 방어권 필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 석방

### 재판 장기화에 따른 수순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 개입으로 2심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된 원세훈(사진) 전 국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피고인의 방어권 측면에서 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6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로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며 보석을 신청한 원 전 원장의 보석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피고인과 검찰의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하는 등 재판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데 따른 수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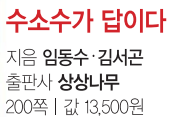
이에 따라 지난 2월 9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 전 원장은 240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특정 정당·정치인을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댓글을 달거나 트위터 글을 올리는 등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보고 대선 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올해 2월 2심은 국정원법 위반과 대선개입 혐의까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재판부가 핵심 증거로 본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연미란 기자

**수소수가 답이다**
지음 임동수·김서곤
출판사 상상나무
200쪽 | 값 13,500원

# 노화와 질병의 원인 수소수가 답이다!

## 수소가 선택적으로 독성산소의 상해로부터 세포를 지킨다 – Nature Medicine 저널 발표

### 질병의 90% 이상은 독성산소가 원인이다

활성산소는 면역기능에 사용되는 좋은 활성산소와 세포를 손상시키는 나쁜 활 성산소(독성산소)로 나뉜다. 독성산소의 발생은 고강도의 운동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과식, 음주, 흡연 및 환경오염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며, 결국 세포를 병들게 하고 노화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된다. 사람은 하루 평균 2만회 이상 호흡하며, 양으로 따지면 1만 리터 이상의 공기가 호흡을 통해 드나든다. 호흡으로 흡수되는 산소는 1,500리터에 달하며, 이중 2~3%(약 30리터)는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남아 활성산소(독성산소)가 된다.

독성산소는 세포안에 DNA를 공격하고 그로 인해 DNA 구조가 깨져 돌연변이 암세포가 만들어진다. 독성산소는 노화의 원인이며, 뇌출혈, 치매는 물론 루게릭,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에이즈, 당뇨병, 아토피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 모든 질병의 90%가 바로 독성산소가 원인이다(미국 존스홉킨스대 의학보고서). 결국 독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우리가 매일 몸을 씻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 전염병의 70%를 예방해준다. 독성산소는 인체를 노화시키고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몸 속 독성산소를 씻어주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요, 지름길이다.

### 기적의 항산화제, 수소

인체에는 독성산소를 제거하는 인체 내 천연 효소로서 항산화효소(SOD)가 있다. SOD는 20대까지는 왕성하게 생성되지만, 35~40세가 되면 더 이상 생성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40대 이후에는 항산화 효소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항산화제가 필요하다. 수소는 독성산소만을 선택적으로 제거, 인체 각 기관 및 뇌세포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항산화제이다. 수소는 비타민 C보다 무려 176배, 코엔자임 Q10보다 865배 강한 항산화 효과가 있으며, 인체에는 무해하다.

### 기적의 비밀은 수소수

최근 학계에서는 미네랄워터, 심층수, 탄산수에 이어 수소수를 주목한다. 프랑스 루르드의 샘물, 독일 노르데나우의 물, 인도 나다나의 우물 등 세계적으로 건강에 좋다는 물을 분석한 결과, 기적의 원인으로 생각할만한 특별한 성분들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던 2007년 5월, 미국의 과학지 '네이처 메디슨'은 일본의과대학 대학원 오타 시게오 교수 연구팀이 연구한 '수소가 활성산소(독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논문은 수소를 녹인 물이 강한 산화력을 가진 독성산소인 '하이드록실 래디칼(Hydroxyl Radical)'을 제거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자, 전 세계에서 치유의 물로 일컬어지는 물들이 수소수 연구실로 모이게 되었다. 연구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적의 물을 분석해 본 결과, 일반적인 물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소'가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마침내 밝혀냈다. 기적의 물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수소'를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독성산소만을 제거하는 수소수!

물은 모든 생명의 모체이며 근원이다. 물을 마시면 혈액과 림프액이 되어 온 몸을 순환하는데, 30초 후면 혈액에 흡수되고, 1분 후 뇌, 생식기, 태아에 전달된다. 10분 후엔 피부조직, 20분 후엔 간, 심장, 신장에 도달하며, 동시에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한다. 물은 모세혈관을 통해 인체 어디든 가며, 따라서 수소수는 몸 속 독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다.

독성산소가 근본원인인 대표적 질환

뇌신경계
뇌경색, 뇌출혈, 파킨슨병, 간질, 자율신경장애 등

안과계
백내장, 망막변성증 등

혈액계
백혈병, 패혈증, 고지혈증 등

순환기/호흡기계
심근경색, 동맥경화, 폐렴, 협심증 등

소화기계
위염, 위궤양, 위암, 간경변, 클론병(국한성장염), 췌장염 등

내분비계
당뇨병, 부신(副腎), 대사장해 등

피부계
아토피성피부염, 광선과민증, 일광(日光)피부염, 등

종양계
흡연에 의한 암, 화학발암, 방사선장해 등

결합조직계
관절류마티즘, 교원병, 자기면역질환

독성산소는 세포안 DNA를 공격한다

독성산소는 '노화와 질병'의 원인이다



## Contents / 수소水가 답이다!

# 케이블·위성방송, 홈쇼핑채널이 먹여살리네

## 유료방송, 낮은 수익 구조·시장 포화
## 홈쇼핑 송출 수수료 5년간 5588억원 증가

낮은 수익 구조와 시장 포화 상태에 다다른 유료방송업계(PTV·케이블·위성방송)가 홈쇼핑 채널 송출수수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유료방송 사업자 매출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부분은 최대 41.3%를 기록했다. 지난 5년사이 수수료 총액은 약 5600억원 증가하면서 매출 의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6일 유료방송업계 등에 따르면 2010년 홈쇼핑업체가 유료방송사에 지불하는 송출수수료 총액은 4857억원에 불과했으나 2014년엔 총 1조445억원으로 2배 가량(5588억원)이 증가했다.

복합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방송사업 매출액 중 홈쇼핑 송출수수료 비중 또한 2010년 22.9%에서 2014년 33.3%로 크게 증가했다.

케이블TV 사업자 CJ헬로비전의 경우 2010년 24.1%(1031억원)였던 홈쇼핑 송출수수료 비중이 지난해 32.2%(2232억원)로 늘었다. 홍세종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 기존 6개 홈쇼핑사업자와의 송출수수료 협상 타결이 지연되고 있으나, 연내 전년과 동결된 액수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7홈쇼핑인 아임쇼핑과도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방영이 시작되면 분기 30억원 수준의 추가 이익 기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블TV 사업자 티브로드도 2010년 24.9%(1233억원) 의존하고

있던 비율이 지난해에는 35.5%(2114억원)까지 늘어났다.

위성방송과 IPTV 사업자도 같은 추세를 나타냈다.

특히 위성방송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는 2010년 방송사업 매출액 대비 홈쇼핑 송출수수료 비중이 6%(약 200억원)에서 18%(1000억원)로 늘어났다. 김희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2015년에는 최소 20% 상승한 1200억원이상으로 추정한다"며 "KT스카이라이프는 2009년 이후 홈쇼핑 수수료 증가율이 가입자 증가율 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케이블TV의 수수료에 비해 5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2016년 이후에도 꾸준히 홈쇼핑 수수료는 연간 두 자릿수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IPTV 사업자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홈쇼핑 송출수수료 비중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0% 초반 선에서 3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A 홈쇼핑사는 높은 송출 수수료 부담을 줄이려고 비(非)인기 번호를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가 케이블TV로부터 거절당한 사례도 있다"며 "유료방송 스스로 돈벌이의 핵심이 홈쇼핑 송출 수수료임을 드러낸 사례"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홈쇼핑이 내는 송출 수수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유료 방송 산업 구조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콘텐츠 공급을 위해선 30번대, 40번대 등 일정 번호대에 홈쇼핑을 묶어 편성하는 홈쇼핑 채널 연번제와 같은 새로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 "변화 흐름 읽고 기회는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 구본무 LG회장, 임원세미나서 강조

구본무(사진) LG 회장이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 기회를 잡고, 한번 잡은 기회는 반드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6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10월 임원세미나에서 시장 변화와 기회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이날 구 회장은 경영진에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중국 경기 둔화와 함께 더욱 커지고, 글로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등 경영 환경이 급속히 어려워지고 있다"며 "냉엄한 현실을 인식하고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 회장은 이를 위해 "우리의 사업 방식과 R&D, 구매, 생산, 마케팅 등 주요 경영활동을 재점검해 개선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그리고 과감하게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 회장은 "어려운 가운데 성장의 기회는 분명이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 기회를 잡고, 한번 잡은 기회는 반드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임원세미나에서는 한명기 명지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징비록(懲毖錄)에서 배우는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했다.

한 교수는 '과거를 반성하여 미래를 대비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징비록의 역사적 교훈을 소개하며, 기업 경영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혜안을 얻고자 한다면 우선 과거에 대한 철저한 통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임원세미나에는 구 회장을 비롯해 강유식 LG경영개발원 부회장, 구본준 LG전자 부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등 최고경영진과 임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조한진 기자 hjc@

# 삼성그룹, 자원봉사도 글로벌 하게

## 38개국, 17만명 참여
## 자원봉사 대축제 실시

삼성그룹은 1일부터 21일까지 세계 38개국 임직원 17만명이 참여하는 '2015 삼성 글로벌 자원봉사 대축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삼성 글로벌 자원봉사 대축제'는 1995년 시작해 올해로 21회를 맞았다. 올 축제에는 삼성 계열사 사장단 19명, 국내외 3100여개 임직원 봉사팀, 임직원 가족, 협력사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다.

농어촌 자매마을 일손돕기 등

삼성전자 브라질법인 임직원이 상파울로에 위치한 아동보호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가을맞이 맞춤형 활동', 임직원의 업무지식과 취미를 활용한 '재능기부', '글로벌 자원봉사' 등 3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가을맞이 맞춤형 활동으로 삼성카드는 2일과 3일 자매마을 일손돕기 봉사캠프를 열고 임직원과 가족 50여명이 경기도 파주 산머루 마을을 방문해 산머루 수확과 포장 활동을 도왔다.

재능기부 활동으로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신나는 과학놀이마당' 봉사팀은 지난 3일 울산 선암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여기서 편광필름 마술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진동로봇 제작대회를 펼쳤다.

글로벌 자원봉사 활동도 진행된다. 해외 37개국 90개 사업장의 임직원 2만8000여명이 지역 환경 정화, 재능 기부, 기부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6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대전센터 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 최양희 미래부장관(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과 임종태 대전센터장(최 장관 왼편)과 장동현 SK창조경제혁신추진단장(앞줄 왼쪽 두 번째) 등이 힘찬 도약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SK제공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1년

# 창조경제 모델 해외서도 큰 주목

## 기념식서 성과·운영방향 제시

벤처의 '요람'으로 거듭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대전센터)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대전센터는 성공적인 벤처기업의 육성은 물론 해외에서도 창조경제의 성공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대전센터는 6일 출범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최양희 미래과학창조부 장관, 권선택 대전시장, 임종태 대전센터장, 장동현 SK창조경제혁신(CEI)추진단장(SK텔레콤 사장), 이재호 SK CEI추진실장, 고형권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장, 강성모 KAIST 총장과 KITE창업가재단 김철환 이사장 등 투자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대전센터는 지난해 10월부터 정부와 대전시, SK그룹이 민관협력모델을 구축해 23개 기술벤처를 선발해 육성하고 있다. 특히 SK그룹은 그룹 최고 경영진이 창조경제를 직접 챙기며 대전 센터를 관리하고 있다.

정부와 SK그룹 등의 지원속에 대전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들을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해외 업체와의 계약성사 등의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선발한 2기 벤처기업도 순항하고 있다.

대전센터의 창조경제 모델은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SK는 사우디텔레콤과 지난 3월 창조경제혁신센터 모델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고, 신성장 사업분야를 서로 공유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미국 펜실베니아대 와튼 스쿨(MBA) 교수진과 스웨덴 국회의원단(통상산업위원회 소속) 등도 운영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대전 센터를 찾았다.

향후 대전센터는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글로벌 거점 확대 △상생·협력하는 창조생태계로의 진화 △기술사업화의 신성장동력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한진 기자

# ‘뿔난 소비자’ 폭스바겐·아우디 집단 소송

**38명, 바른 통해 2차 소송
매매 취소·대금 반환청구**

**최대 1만2000명 소송예상
배상 금액 총 3600억 규모**

국내 폭스바겐·아우디 차주들이 단단히 뿔났다. 최대 1만2000명이 넘는 폭스바겐·아우디 차주가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소송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한 첫 소송인 만큼 어떠한 판결과 선례를 남길 것인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차값을 돌려달라는 계약무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6일 서울 삼성동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전자 38명을 원고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2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 38명 중 29명은 차량을 구입했고 나머지 9명은 장기렌트(리스) 차주다.

바른은 이 소송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서 판매된 차량은 총 14만5000대에 이르며 9월 30일 1차 소송 후 약 1000여건의 문의, 500여명이 소송 제출 서류를 바른 측에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는 하 바른 변호사는 “2차 소송은 구입, 리스 유형으로만 이뤄진 상태지만 당분간 매주 소송인원을 모집해 추가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최대 1만2000명까지 소송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바른은 13일에 3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바른은 이번 소송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했다. 1·2차 소송에서 적용된 구입, 리스와 차후 적용 예정인 중고차, 해당 모델 제외차량 등이다.

다만 몇 가지 변수가 있다. 차주가 리스로 구매한 경우 명의가 리스회사로 돼 있어 리스회사의 협조가 없으면 매매계약 취소 소송에는 참여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바른은 주위적청구인 ‘매매계약 취소·매매대금반환’과 예비적청구인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투 트랙으로 진행한다.

6일 하종선 바른 변호사가 기자간담회에서 폭스바겐 2차 소송과 관련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하 변호사는 “폭스바겐파이낸셜을 비롯한 몇 몇 리스회사가 협조해 주지 않아 예비적청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차를 구입한 차주의 주위적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 3000만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은 중고차와 해당 모델제외 차량의 경우 이번 사태로 브랜드·상품 이미지가 실추됐고 이에 따른 중고차 가격 하락 등이 예상돼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중고차 손해배상 금액은 2000만원을 제시할 예정이다.

바른은 인지대(소송 제기 시 내는 법원수수료)만 받고 소송을 담당할 정도로 승소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바른은 승소 시 성공보수를 10%로 책정했다. 가령 손해배상금을 3000만원으로 잡고 1만2000명이 소송에 참여하면 3600억원 규모로 판이 커진다. 이 중 360억원을 바른 측이 받는다.

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대기환경보존법 위반과 소비자 기망행위가 명백하고 독일 폭스바겐·아우디 본사가 이를 시인하고 사과하며 해당차량을 리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폭스바겐이 측이 일방적으로 48만2000대 리콜 차량의 소유주에게 2000 달러(23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 변호사는 국내 소유주들이 리콜에 응하고 보상금을 받으면 폭스바겐·아우디 측이 손해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 영향이 없는 조건부 리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 변호사는 “승소·합의 모두 고려하고 있는데 폭스바겐 측에서 보상액을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 판사들도 폭스바겐 관련 첫 소송인 만큼 전 세계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기 기자 yonggi@metroseoul.co.kr

## 현대·기아차, 세계과학정상회의 대표들 태운다

**제네시스·K7·스타렉스
총 42대 의전차량 지원**

현대·기아자동차가 과학기술회의인 ‘2015 세계과학정상회의’에 의전 차량을 지원한다.

현대·기아차는 6일 미래창조과학부 대회의실에서 박광식 현대·기아차 부사장, 최영해 세계과학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량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

현대·기아차가 2015 세계과학정상회의에 지원하는 차량은 제네시스, K7, 스타렉스 등 3개 차종 총 42대다.

행사가 열리는 동안 국가정상급 대표 등 고위급 관계자들의 의전·수행에 활용된다.

충청남도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2015 세계과학정상회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총장, 57개국 장차관, 12개 국제기구, 노벨상 수상자, 글로벌 CEO(최고경영자) 등 총 30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6일 미래부에서 최영해 세계과학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왼쪽), 박광식 현대·기아차 부사장이 의전차량 42대 전달식을 기념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2015 세계과학정상회의에서는 향후 10년간의 세계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결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박 부사장은 “향후 10년간의 세계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의미 있는 자리에 공식 차량 후원사로 함께 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2015 세계과학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차량 지원·운영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정용기 기자

## ‘한글날’ 맞아 한국도서 5000권 기증

**아시아나항공
태국 학교에 교육물품 전달**

아시아나항공은 한글날을 맞아 태국 방콕 중등학교 두 곳에 한국어 도서 5000여권을 기증했다고 6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태국 방콕 싸라위타야학교와 라영위타야콤학교에 한국어 도서 5000여권과 한국어 교육물품을 전달했다.

전달식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은 두 학교에 각각 한국어 도서·교과서 총 4600여권과 서가, 한국어 교육용 컴퓨터 2대 등을 전달했다.

태국 내 한국교육원에도 초·중등교과서 800권을 지원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번 한국어 도서 지원으로 태국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단순한 도서지원의 의미를 넘어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류문화를 전파하는 데에도 이바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싸라위타야 학교의 파니타 쑤아얀 학생은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지원 덕분에 맘껏 한국어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한국어를 열심히 익혀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국어 도서지원 수혜 학교로 선정된 두 곳은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원의 추천으로 선정됐다.

태국 교육부로부터 한국어 교육 거점학교로 지정받을 만큼 한국어에 대한 교육열이 높은 학교다. /정용기 기자

6일 싸라위타야학교를 방문한 아시아나항공 캐빈승무원이 학생들과 함께 한국어 도서를 읽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

## 대한항공, 러시아서 ‘최고 외항사’로 선정

대한항공이 러시아를 취항 최고의 외국 항공사로 선정됐다.

대한항공은 최근 모스크바 프레지던트 호텔서 진행된 ‘2015 러시아 비즈니스 관광 & 마이스 어워드’ 시상식에서 ‘비즈니스 여행객 최고 항공사’ 부문 외국항공사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2015 러시아 비즈니스 관광 & 마이스 어워드는 러시아 유력 잡지사인 ‘비즈니스 트래블’이 주관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 중 하나다.

비즈니스 트래블은 러시아로 취항하는 항공사를 비롯해 호텔, 컨퍼런스, 여행사 등 여행·관광업계 각 분야를 평가, 우수 업체를 선발한다.

비즈니스 여행객 최고 항공사는 러시아를 취항하는 항공사들 중 후보로 지명된 1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1위는 러시아 국영항공사인 아에로플로트, 2위는 대한항공, 3위는 아랍에미리트의 에티하드항공이 차지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 삼성-LG, 3분기 디스플레이 실적 명암

삼성
**스마트폰 OLED패널 활성화 매출·영업익 동반 상승기대**

LG
**LCD패널 단가 인하·수요↓ 4분기 실적도 어두울 듯**

국내 디스플레이업계 라이벌인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3분기 엇갈린 성적표를 받을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LCD 패널 시장은 중국 업체가 본격적으로 합류하면서 패널 가격 인하로 이어졌다. 때문에 양사 영업이익은 모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LG는 TV 패널 단가 인하에 OLED 시장까지 활성화 되지 않으면서 3분기 실적은 물론 4분기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다. 다만 삼성은 스마트폰 OLED 패널 판매량 증가로 예상밖 성적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당초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사업 부진으로 4000억원대 영업이익을 예상했지만 중국에서 스마트폰용 O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스마트폰 출시가 본격화되면서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상승할 전망이다.

중국 최대 스마트폰 업체 화웨이가 구글과 손잡고 새롭게 공개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넥서스 6P에도 삼성디스플레이가 생산하는 OLED 패널이 채택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출시한 플래그십 스마트폰 '메이트S'도 OLED를 채택했다. 덕분에 삼성디스플레이의 실적 상승세는 4분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동원 현대증권 연구원은 "현재 삼성전자 SUHD TV 판매가 호조를 나타내며 대형 UHD TV 패널 출하가 급증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중저가 스마트폰의 OLED 탑재 확대와 중국향 외판비중이 늘어나며 중소형 OLED 패널라인 가동률도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LG디스플레이의 3분기 영업이익 평균예상치는 3580억원으로 전 분기(4881억원)대비 24% 하락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6조 8600억원으로 전 분기(6조7076억원)에 비해 1% 증가하지만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주력인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수요가 감소하고 패널 단가 인하 압박이 커진 것이 부진한 실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또 대형 OLED패널 시장이 개화되지 않으면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증권가에서는 LG디스플레이의 4분기 실적 전망도 어두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고정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LG디스플레이의 3·4분기 연결기준 영업익은 3580억원으로 24% 감소,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LG디스플레이의 실적 부진은 패널 가격 하락과 수요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초과공급이 이뤄진 탓"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LG디스플레이의 4·4분기 연결 영업익 전망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감소한 3019억원으로 내렸다"며 "LCD패널 공급과잉과 패널 가격 하락폭 확대로 하반기에도 수익성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6일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에서 여직원 등 40여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고추 수확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화 제공

## 한화, 창립 63주년 맞이 '릴레이 봉사활동'

한화그룹은 9일 창립 63주년을 맞아 10월 한 달 동안 임직원 릴레이 봉사활동을 펼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올해 메르스 여파로 헌혈자 수가 급감해 혈액부족 현상이 심하고 혈액수입으로 외화유출도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혈액수급을 지원하고 아픈 이웃들을 돕자는 취지에서 헌혈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 중구 한화 본사에서는 이태종 방산부문 사장, ㈜한화, 한화케미칼, 한화테크윈, 한화큐셀, 한화S&C 임직원 150여명이 단체로 헌혈 캠페인에 참여했다.

또 일·가정을 병행하는 여직원 등 40여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자매마을에서 고구마 수확, 고추밭 정리 등 가을철 바쁜 농촌일손을 도왔다.

다른 계열사들도 사업장별로 헌혈 캠페인·농촌일손돕기 등의 릴레이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15일에는 여의도 63빌딩에서 한화생명, 한화투자증권, 한화손해보험 임직원들이 참여해 단체로 헌혈을 할 예정이다.

한화테크윈, 한화토탈, 한화탈레스, 한화종합화학 임직원들도 본사·지방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헌혈·인근 지역 농촌 일손 돕기 등을 진행한다. /정용기 기자

## 이제 요리하면서 24인치 TV 즐기세요

LG전자-한샘
**주방 수납장 빌트인 '스마트키친 TV' 출시**

LG전자 모델이 6일 서울 목동 한샘 플래그 샵에서 '스마트 키친 TV'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LG전자가 새로운 주방 문화를 이끌 신개념 디스플레이를 선보였다.

LG전자는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과 손잡고 빌트인 '스마트 키친 TV'를 이달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제품은 주방 수납장 안에 별도 제작된 미니빔 TV를 설치하고 수납장 문을 스크린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배선 거치대 등 외부로 드러나는 부분이 없어 고객들은 깔끔한 주방 인테리어를 연출할 수 있다.

지금까지 주방용 TV는 10인치대의 소형 제품이 대부분이었지만 '스마트 키친 TV'는 24인치 크기에 HD급 화면을 구현한다. 프로젝터 TV의 자체 스피커는 10W(와트) 출력을 갖춰 동영상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LG전자는 TV 기능 외에도 다양한 스마트 기능들을 탑재해 편의성을 높였다. 고객들은 USB, 미러링 기능 등을 이용해 스마트폰, 태블릿 등 IT 기기와 손쉽게 연동할 수 있다. LG전자는 주방에서 라디오 청취를 많이 한다는 점에 착안해 신제품에 라디오 기능도 추가했다.

이 제품은 전국 한샘 키친&바스 전시장과 키친프라자, 한샘리하우스 전시장, 한샘ik 제휴점 등에서 판매된다.

허재철 LG전자 한국HE마케팅FD담당 상무는 "신개념 디스플레이가 주방을 즐기는 공간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진 기자 hjc@

## 두산중공업, 인도서 2000억원 발전설비 수주

두산중공업은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 주에 있는 하두아간즈 화력발전소용 발전설비를 약 2000억원에 수주했다고 6일 밝혔다.

두산중공업과 인도 현지법인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는 도시바가 EPC(일괄도급)방식으로 건설하는 하두아간즈 발전소에 660MW 보일러 1기를 2019년 9월까지 제작·공급할 계획이다.

인도는 중국과 함께 세계 최대의 석탄화력 발전 시장이다.

특히 인도 모디 정부가 제조업 육성 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를 추진하면서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두산중공업은 2020년까지 연평균 18GW의 석탄화력발전소 발주를 예상했다. /정용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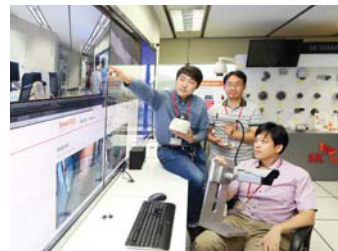
## SKT '지능형 영상인식 솔루션' 세계서 인정

**국내 최초 英 CPWI 기술인증**

SK텔레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지능형 영상인식 솔루션'이 영국정부 산하 'CPNI(국가기간시설 보호센터)'로부터 최고 레벨의 기술인증을 취득했다고 6일 밝혔다.

영상인식 기술 인증 기관인 CPNI로부터 내장형 기기 기반 영상인식 기술이 최고 레벨의 인증을 취득한 것은 국내 처음이며 세계에서 두 번째라고 SK텔레콤은 설명했다.

SK텔레콤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영상 분석 알고리즘을 자사 솔루션에 적용했다. 특히 고가의 하드웨어가 없어도 동작이 가능하도록 가벼운 알고리즘을 적용해 성능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2014년부터 오경보 방지를 위해 SK텔레콤은 영상인식 시스템 상에 감지되는 물체의 움직임 패턴과 특성을 연구해왔다. 지난 8월 자체 개발한 '이동체 검출 알고리즘'을 자사가 제공하고 있는 영상인식 솔루션에 적용해 성능 검증에 성공했다.

SK텔레콤은 인증 받은 솔루션을 자사의 지능형 영상분석 서비스인 '비디오 클라우드 솔루션'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비디오 클라우드 솔루션은 CCTV 녹화 영상을 자체 보안 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고 별도의 영상저장장치 없이 운용할 수 있어, 소규모 사무실이나 매장에서 사용하기 쉽다. /정문경 기자 hm0108@

# 기준금리, 당분간 추가 인하 없을 듯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추가인하 관측에 '쐐기' "최근 내수 회복세 보여"

한국은행이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의 금리인상 지연에 따른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기 때문이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주열 총재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희수 위원장이 '미국이 지난달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으니 한은이 한 번 더 금리를 인하할 기회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를 묻자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한다"고 대답했다.

이 총재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계획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인상 시기를 늦춘 것이므로 그런 각도에서 해야 한다"면서 "통화정책 방향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총재의 이날 발언은 최근 나도는 추가 금리인하 관측에 사실상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하할 기회가 생겼다는 분석이 국내외 금융전문가들 사이에 제기돼 왔다.

채권시장에서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에 힘입어 5년 이상 장기채 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5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1.577%로 전날보다 0.007%포인트 하락했고,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0.022%포인트 내린 연 1.721%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한은은 최근 내수가 회복되고 있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23일 경제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관측하는 것처럼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아울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끝나면서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며 현 금리 수준이 명목금리의 하한선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한 자신의 최근 발언에 대해 '금리 인하' 신호로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 추가 금리인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LG경제연구원은 6일 '금융시장의 예상보다 금리 인상 서두르는 미연준, 신흥국發 리스크 우려된다'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가계부채와 신흥국 리스크, 저성장 등을 고려해 미국과 상관 없이 오히려 금리를 낮추거나 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태 기자 folium@metroseoul.co.kr

**KB국민은행 스타즈 사격단,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 KB국민은행 스타즈 사격단 소속인 (왼쪽부터)김준홍, 한유정, 이정은, 장대규 선수가 6일 청주 율량동지점에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상품에 가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으로 모집된 기부금은 정부가 추후 설립할 (가칭)청년희망재단에 일괄 기부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제공

# 한화투자증권 내홍, 고객 이탈로 번지나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대표식 개혁에서 촉발된 내부 갈등이 고객 이탈로 번지는 양상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의 순수추천고객지수(NPS) 조사 결과 올해 3분기 NPS는 지난해 하반기 수준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투자증권은 주진형 대표 취임 이후 반기나 분기별로 외부 기관을 통해 자사 고객을 상대로 타인에게 한화투자증권 추천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NPS가 플러스(+)면 타인에게 추천할 의사를 가진 고객이 많다는 뜻이다.

앞서 주 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NPS가 향상됐다며 개혁 실패론에 대해 반문한 바 있다.

하지만 한화투자증권의 NPS는 지난해 상반기 -28.2에서 하반기 -11.6, 올해 1분기 -3.6, 2분기 5.5로 개선되다 올해 3분기 다시 -13.5로 떨어졌다.

3분기 NPS는 지난달 고객 2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서비스선택제 도입 등에 고객 불만이 쌓인 탓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서비스선택제 시행 첫날인 지난 5일에는 콜센터와 각 지점으로 고객의 항의 전화와 방문이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화투자증권은 홈페이지에 '서비스선택제' 도입에 따라 본인이 받을 서비스를 선택하라는 안내공지를 띄웠다.

서비스선택제는 고객의 주식 위탁계좌를 전담 PB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는 '컨설팅계좌'와 온라인전용 계좌인 '다이렉트계좌'로 나눠 계좌별로 수수료를 달리 부과하는 제도다. /김보배 기자

# 실손보험, 내년부터 보장기간 늘어난다

### 보장한도 도달할 때까지 기간 관계없이 계속 보장

### 산재보험 보장범위 확대 중복 가입 피해구제 마련

내년부터 입원비 보장 기간이 늘어나는 등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을 제고하고자 입원 보장기간 1년 후 90일간 보장하지 않는 현행 방식을 바꾸겠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입원 치료 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간 입원비를 보장받지만 이후 3개월은 보장 기간에서 제외돼 해당 기간 동안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보험사가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보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고의적인 장기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보장 제외기간을 둔 것이나, 선의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의 보장한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나 산업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치료비용 등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해 보험사가 40%를 보상했지만 앞으로는 80~90%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실손의료보험 중복 계약자에 대한 피해구제 수단도 마련했다.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판매 과정에서 중복계약 확인이나 비례보상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가입 기간 중 아무 때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 취소 시 납입된 보험료나 이자 환급도 이뤄진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실손의료보험 판매 시 중복계약 여부 확인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안은 올해 안에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금감원 관계자는 "입원비 보장 확대 등 보험금 지급기준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바뀜으로써 실손의료보험에 가입 중인 다수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보험사 업무처리가 소비자 권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bobae@

# KT-흥국화재, 운전습관 연계보험 개발 추진

### 한국형 UBI 상용화 계획

KT와 흥국화재가 운전자 습관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1만명의 'UBI 데이터 시범사업'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UBI 데이터 시범사업은 사물인터넷(IoT) 기반 차량정보 수집장치(OBD)를 체험단 차량에 장착 후 확보된 차량운행 정보를 KT의 빅데이터 기술이 결집된 분석 플랫폼을 통해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분석한다. 이 정보를 이용해 흥국화재에서는 사고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한국형 UBI(운전습관 연계보험)를 개발해 상용화 할 계획이다.

체험단에게는 KT의 운전습관 분석 어플리케이션(앱) 'k-ubicar'와 참여자 차량에 장착할 수 있는 15만원 상당의 IoT 기반 차량정보 수집장치(OBD)를 무상으로 1년 동안 제공한다.

KT와 흥국화재는 시범사업 체험단을 10월 6일부터 선착순 1만명 모집하며, 차량을 소유한 개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체험단 신청은 전용 콜센터인 '1688-6870'를 통해 가능하며, 흥국화재 자동차보험에 신규 가입을 해야 한다. 관련 내용은 흥국화재 UBI 체험단 모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문경 기자

# '슈퍼동맹' TPP, 섬유株 웃고 자동차株 울상

## 섬유·의류업, 참가국에 생산설비 보유 수혜 기대
## 자동차, FTA 혜택 약화에 가격 경쟁력 하락 우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국내 증권시장에서 섬유·의류주와 자동차주의 희비가 엇갈렸다. 협상 참가국에 생산설비를 보유한 섬유·의류업체의 수혜 기대감과 자동차업체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불안감이 투자심리에 그대로 반영된 모양새다.

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섬유·의복 업종은 1.16% 올랐다. SG충남방적이 전 거래일 대비 상한가인 29.94%까지 치솟은 2170원을 기록한 가운데 같은 방직업체인 경방(4.06%), 일산방직(6.84%) 등도 동반 상승했다.

베트남에 해외 생산법인을 두고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의류를 생산해 수출하는 윌비스 역시 전일보다 29.76% 상승한 2420원을 기록했다. SG세계물산도 29.72% 오른 1855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TPP 최대 수혜주로 꼽힌 한세실업(4.10%), 태평양물산(4.25%) 등도 큰 폭 올랐고 영원무역은 장 초반 7% 이상 상승하다 오후 들어 하락세로 돌아서 1.85% 약세 마감했다.

이날 증권가에서는 TPP 체결에 따라 참가국에 생산설비를 보유한 섬유·의류 업체가 수혜를 입을 것이란 분석이 잇따랐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지난 2008년 미국이 참여의사를 밝힌 뒤 일본, 캐나다,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등 12개국이 동참해 5일(현지시간) 7년 만에 타결됐다.

아직 세부 조항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섬유·의류 업종은 수출 시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원산지 판정방식이 확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참여국 중 유일하게 섬유·의류 최대 수출국인 베트남의 경우 미국 수출 시 현재 17%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 무역·통상 장관들은 5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조지아 주(州) 애틀랜타의 리츠칼튼 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나은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가장 큰 수혜는 베트남 생산 거점을 확보한 의류OEM 업체"라며 베트남 생산 비중이 60%에 달하는 한세실업, 50% 수준인 태평양물산, 18%인 영원무역 등을 중장기적인 수혜주로 제시했다.

유정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섬유산업은 여타 제조업 분야와 달리 TPP 참여 12개 국가와 경쟁에서 자유롭다"며 "특히 한·일간의 경합도가 낮아 일본의 수혜가 적은 반면 베트남에서 생산 중인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섬유·의류주가 상승한 사이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일본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던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현대차(-3.66), 현대모비스(-0.87), 기아차(-3.24%) 등 자동차 3인방을 비롯해 성우하이텍(-6.34%), 한일이화(-4.96%), 에스엘(-3.11%) 등 자동차 부품, 관련주는 일제히 하락했다.

TPP 체결로 미국 시장에서 일본차의 관세가 낮아지면서 한미 FTA에 따른 한국차의 관세 혜택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다만 전문가들은 TPP가 국내 자동차 업체에 큰 타격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란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상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한미 FTA를 통해 자동차부문 관세율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가 TPP 협상 타결로 일본과 동등한 입장이 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이미 미국, 멕시코 등에 한국 완성차와 부품업체들이 동반 진출해 있기 때문에 실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TPP 타결이 국내 업체들에 달갑지 않은 뉴스지만 긍정적인 전망을 바꿀 정도의 악재는 아니다"라며 "지금은 TPP보다 현대·기아차의 4분기 가동률 회복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

**증권 마감시황**

## 코스피, 美금리인상 지연 기대감에 상승

코스피지수가 미국의 금리인상 지연 기대감에 이틀 연속 상승했다.

6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2.40포인트(0.63%) 오른 1990.65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89억원, 486억원 순매수했고 개인 홀로 1565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3.01%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비금속광물도 2.95% 상승했다. 섬유의복은 TPP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에 장 초반 7.98%까지 급등하기도 했지만 일부 종목들이 오후 장 밀리면서 1.16% 상승으로 장을 마쳤다. 증권, 유통업, 운수창고 등은 약보합 마감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 SK하이닉스와 삼성SDI는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각각 5.23%, 3.32% 올랐다. 반면 현대차(-3.66%), 현대모비스(-0.87%), 기아차(-3.24%) 등 자동차주는 일본차 업체와 수출 경합도가 높다는 점에서 TPP 피해주로 분류되며 동반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글로벌 증시 상승 소식에 오름세로 출발했으나 오후 하락세로 돌아서며 전날보다 2.13포인트(0.31%) 내린 689.06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7억원, 124억원 내던진 반면 개인은 241억원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하락업종이 우세했다. 통신서비스와 운송장비부품이 2%대 하락한 반면 종이목재와 비금속은 3%대 올랐다.

시총 상위종목에서는 로엔이 2.73% 상승, 다음카카오, 동서 등은 내렸다. /김보배 기자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12.40포인트(0.63%) 오른 1990.65에 거래를 마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 직원이 거래 현황판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

**NH투자증권, 서울대 '제7기 100세 시대 인생대학' 개강** 함종욱 NH투자증권 WM사업부 대표가 지난 5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프리미엄 고객 행사인 제7기 '100세시대 인생대학' 개강 행사에서 축하 인사를 하고 있다. /NH투자증권 제공

---

## 신한금투, 연5% 수익추구 ELS 등 3종 공모

### 내일 오후 1시까지 판매

신한금융투자는 오는 8일까지 원금비보장형 ELS(주가연계증권) 상품 3종을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ELS 11661호'는 조기상환형 스텝다운 구조에 3년만기, 노낙인(No Knock In) 구조로 S&P500, EUROSTOXX50, NIKKEI225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조기상환 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기준가격의 80%(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75%(30개월), 60%(36개월) 이상인 경우 연 5.0%의 수익금과 원금이 상환된다. 만기상환 시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 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원금 및 수익금(15.00%)이 상환되며 기초자산의 종가가 하나라도 최초 기준가격의 60% 미만이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S&P500, EUROSTOXX50, NIKKEI225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월지급식 'ELS 11660호'는 3년 만기 상품으로 발행 후 6개월마다 조기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월수익 지급은 매월 수익지급 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가의 65%이상이면 0.50%(연 6.00%)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이 외에도 다양한 기초자산과 수익구조를 갖춘 ELS 상품 총 3종을 오는 8일 오후 1시까지 판매한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상 10만원 단위로 신한금융투자 전국 각 지점 및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김보배 기자

# “청라 옆에 가정” “송도 옆에 논현” 후광효과 노린 단지 뜨네

# 최근 인천 가정지구로 이사한 주부 정 씨(41)는 약속이 있거나 대형마트, 병원 등을 이용할 때는 인근 청라국제도시로 간다. 가정지구가 청라국제도시와 맞닿아 있어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막 입주를 시작한 가정지구는 인프라 조성이 한창 진행 중이라 편리한 주거환경을 누리기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정씨는 청라국제도시보다 아파트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때문에 최근 가정지구로 이사했다.

### 가정지구, 84㎡ 기준 청라지구보다 2500만원 저렴
### 접근·편의성 우수… 대형 택지지구 인근 분양 봇물

최근 정씨처럼 신도시나 대형 택지지구 인근에 있는 신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수요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형 택지지구는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있지만 인근 아파트는 주목도가 낮아 아파트값이 저렴한데다 개발호재도 풍부하기 때문이다. 또 인근 신도시나 대형택지지구의 잘 갖춰진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지난 6월 아이에스동서가 미사강변도시와 맞닿은 현안 2지구에 선보인 ‘하남 유니온시티 에일린의 뜰’은 591가구 모집에 4025명이 접수, 평균 6.81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로 청약마감됐다. 해당 단지는 정해진 계약인 정당계약 4일 만에 분양 완판을 이룬 바 있다.

또 수양종합건설·명주산업개발이 9월 송도신도시 인근 소래 논현지구에 분양한 ‘인천 논현 한양수자인 아르디에 테라스’도 정당계약 3일 만에 모든 계약이 완료됐다.

이러한 인기는 저렴한 매매가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114(대표 이구범)에 따르면 9월 청라지구가 속한 경서동 매매가는 3.3㎡당 1096만원인데 반해 올해 분양한 가정지구 평균 분양가는 3.3㎡당 1019만원으로 77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이를 전용 84㎡로 환원 시 약 2500여 만원이 차이난다.

이에 신도시나 대형택지지구 인근의 공급 물량이 잇따르고 있다.

호반건설은 이달 말 인천 가정지구 5블록 일원에 ‘가정 호반베르디움 더센트럴’을 분양한다. 이 단지는 서측으로 청라국제도시와 맞닿아 있고 동측으로는 루원시티와 연접 개발된다.

인천 가정 호반베르디움 더센트럴 조감도.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가정 오거리(가칭 예정)역과 서인천 IC 연결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이 가까워 서울 접근성 뿐만아니라 광역교통망이 좋다. 단지는 지하 1층, 지상 24~25층 10개동 980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 ▲73㎡A 443가구 ▲73㎡B 150가구 ▲84㎡ 387가구 등이다.

효성은 이달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대에 ‘용인 기흥 효성해링턴 플레이스’를 분양한다. 반경 2㎞ 내외 거리에 기흥호수공원과 영통 체육문화센터, 태광CC 등이 있고 수원영통지구와 흥덕지구, 기흥역 세권이 가깝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6층 17개동 규모이며 전용면적 73~123㎡ 1679가구로 구성된다.

부동산 관계자는 “인프라가 갖춰진 신도시나 택지지구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는 뛰어난 접근성과 편의성으로 가성비도 우수한 데다, 지역간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다”며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염두에 두고 있는 수요자들에게는 안성맞춤”이라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 건설관리公, 공단 전환 추진

### 2011년부터 6차례 매각 무산

한국건설관리공사(대표 김원덕)가 공단 전환을 추진한다.

6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등에 따르면 건설관리공사는 올 초 20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의 안전관리 업무를 비롯해 건설안전에 관한 교육·홍보·평가·조사·연구사업을 시행하는 한국건설안전공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건설관리공사는 1993년 국토부 산하 4개 공사의 자회사로 각각 설립됐다가 1999년 통합해 하나의 공사로 출범했다. 현재 도로공사(42.6%), 토지주택공사(38.5%), 수자원공사(18.9%)가 지분을 나눠갖고 있다.

건설관리공사는 2008년 8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민간 감리업계와 중복 업무를 줄이는 차원에서 민영화 추진이 확정됐다.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매각을 시도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공사 인원이 531명(정규직 330명)에 이르고 매각 평가금액은 400억원에 육박하는 반면 민간 감리업체들이 시장에 충분히 진입한 상태라 인수자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건설안전공단 법안은 지난 1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이다.

법안은 건설관리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공단이 포괄승계하도록 하고 공단 운영자금은 정부 등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수익금과 차입금 등으로 조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건설안전’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연구용역에는 건설안전공단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포함됐다. 연구용역은 11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박상길 기자

### 쌍용건설, 무재해 안전결의 현장근로자 등 전직원 참석

쌍용건설(대표 김석준)은 최근 본사와 국내 전 사업장에서 안전혁신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행사는 임직원의 안전의식 고취와 중장기 안전방안 수립을 위해 마련됐으며 김석준 대표를 비롯해 본사·국내 현장 전 임직원은 물론 현장의 근로자까지 모두 참석했다.

본사에서는 안전혁신 대토론회에 이어 ▲외부 특강 ▲중장기 현장 안전관리방안 발표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결의 등이 실시됐다.

**견본주택 오픈**

## 삼호가든 4차 재건축… 3.3㎡당 3600만원부터

### 대우건설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

대우건설(대표 박영식)은 9일 서울 서초구 반포 삼호가든4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일반 분양한다고 6일 밝혔다.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 조감도.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은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8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49㎡~133㎡ 751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별로 59㎡ 114가구, 84㎡ 73가구, 133㎡ 14가구 등 20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85㎡이하 중소형이 93%다.

3.3㎡당 분양가는 최저 3600만원~최고 4300만원대이며 발코니 무상확장·중도금 이자 후불제 혜택이 제공된다. 입주예정일은 2018년 3월이다. /박상길 기자

## 982가구 규모… 85㎡ 이하 중소형 81% 차지

### GS건설 ‘신동탄파크자이 1차’

GS건설(대표 임병용)은 8일 경기도 화성시 능동 624-4번지 일원에 신동탄파크자이 1차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신동탄파크자이 1차는 지하 3층~지상 21층 11개동 전용면적 76~100㎡, 982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76㎡ 392가구 ▲84㎡ 406가구 ▲100㎡ 184가구로 구성된다. 85㎡ 이하 중소형 평형이 81%를 차지한다.

청약은 15일 특별공급, 16일 1순위, 19일 2순위로 이뤄지며 23일 당첨자 발표, 28일~30일 당첨자 계약이 진행된다. 입주는 2018년 1월 예정이다. /박상길 기자

신동탄파크자이 1차 조감도.

# 롯데 계열사 '블랙프라이데이' 판키운다

### 신동빈 회장 당부에 추가 행사 급편성
### 백화점·마트·면세점 등 마진 최소화

백화점·마트·면세점 등 롯데그룹 유통계열사들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판 키우기에 나섰다.

지난 4일 신동빈(61·사진)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정책본부를 통해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기간동안 유통마진을 줄여서라도 소비자들에게 좋은 제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롯데백화점은 이달 8일부터 세일참여 브랜드와 추가세일 브랜드 확대, 노마진(No-margin) 행사 기획전 등을 추가로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세일 참여 브랜드에 40여 개의 신규 브랜드가 참여하며 할인폭도 10~20% 추가로 확대된다.

백화점이 마진을 받지 않고 그만큼 가격을 낮춰 협력사와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노마진 상품전도 기획됐다. 롯데백화점이 추가로 확대하는 행사 규모는 100억원 가량이다.

롯데마트는 8일부터 14일까지 100여개 주요 PB(자체 브랜드) 상품에 대한 할인을 진행한다. '다다익선'(多多益善) 할인 행사를 진행해 동일 품목 2개 구매 시 10%, 3개 이상 구매 시 20% 할인 판매한다.

또 같은 기간 지정 신용카드(롯데·신한·국민·우리)로 결제 시 주방용품 브랜드 300여 개 상품을 50% 할인한다.

롯데면세점도 6일부터 할인 혜택 품목을 해외 명품잡화, 시계·보석, 악세서리, 화장품·향수 등 198개 브랜드로 확대했다.

할인 대상에는 제냐, 발렌시아가, 토리버치 등 해외 유명 패션잡화는 물론 85개 수입·국산 화장품 브랜드가 포함된다. 할인폭도 평균 30~50%로 늘렸으며 일부 상품은 8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11일까지 400 달러 이상 내국인 구매 고객에게는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1만권권도 제공한다.

롯데하이마트는 8일부터 기존 300억원 규모의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 200억원을 추가해 총 500억원 규모의 할인행사를 한다.

초특가 기획 상품 14만개가 준비됐으며 자체 유통마진을 최소화해 소비자 부담을 줄였다.

또 상품권 증정, 캐시백 혜택 등의 혜택도 추가로 제공한다.

김보준 롯데면세점 마케팅부문장은 "백화점, 마트 등 그룹 계열사들과 동시 진행하는 블랙프라이데이의 확대가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번 행사에 공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기간 롯데백화점 본점의 모습. 롯데백화점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블랙프라이데이 적극 참여를 지시함에 따라 6일부터 할인 품목과 할인율을 대폭 강화했다. /롯데백화점 제공

## 컬럼비아 "5년 내 매출 5000억 달성"

**심한보 대표 기자간담회**

### 아웃도어 톱3 목표
### 낚시·요가웨어 론칭

아웃도어 브랜드 컬럼비아(대표 심한보·사진)가 현재 3000억~3200억원 수준인 매출을 2020년 5000억원까지 끌어올려 국내 시장 톱3 브랜드로 거듭날 전망이다.

심한보 컬럼비아스포츠웨어코리아 대표는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컬럼비아의 정통성과 제품력을 강조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직영점 오픈과 유통망 확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피싱(낚시) 라인인 PFG컬렉션과 요가웨어를 기반으로 한 프라나 론칭 등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컬럼비아는 이 일환으로 테드티드 터프 캠페인을 론칭하고 유통망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테스티드 터프는 완벽, 그 이상을 추구하는 컬럼비아의 철학이자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다. 또한 개발 단계부터 최종 테스트까지 전 직원이 완벽을 기한다는 컬럼비아의 약속이기도 하다. 테스티드 터프는 하반기부터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는 캠페인으로 본사인 미국에 앞서 한국 시장에 먼저 공개됐다.

심 대표는 "캠페인인 테스티드 터프의 궁극적 목표는 컬럼비아의 정통성과 브랜드 철학을 알리는 것"이라면서 "포틀랜드 라이프스타일을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여와 소비자들이 보다 오래도록 아웃도어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캠페인은 거트 보일 회장의 신념에서부터 시작됐다.

거트 보일 회장은 작은 모자 회사로 시작한 컬럼비아를 현재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전개 중인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로 성장시킨 주역이다. 그는 "완벽하지만 더 잘 만들도록 하라"고 직원들에게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컬럼비아는 이날 2015 가을겨울 콜렉션도 소개했다.

콜렉션은 자연 속 아웃도어 라이프와 도심 속 일상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포틀랜드의 라이프스타일을 디자인에 반영했다. 현대적이고 심플한 디자인을 핵심으로 복잡한 배색과 절개 대신 톤온톤의 색상을 기반으로 서로 다른 소재를 섞었다.

한편 심한보 대표는 지난 6월 컬럼비아스포츠웨어 코리아 대표로 취임했다. 아디다스코리아 최고 재무관리자 CFO, 테일러메이드 코리아 글로벌 부사장과 한국 사장을 역임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

"'땅콩호박' 듬뿍 넣은 '순땅콩호박 시리즈' 어떠세요"

6일 오전 서울 중구 퇴계로 5가 CJ제일제당센터에서 호텔 셰프 출신의 땅콩호박 농장주 최종섭씨와 홍보 모델들이 뚜레쥬르 '순땅콩호박 시리즈'를 소개하며 환한 표정을 짓고 있다. 뚜레쥬르는 가을 '땅콩호박'을 재료로 사용해 '순땅콩호박 시리즈'를 출시했다. 땅콩호박은 단호박에 비해 칼로리가 낮고 베타카로틴 등 영양분이 풍부해 각광받는 식재료다. /뚜레쥬르 제공

## '창립 70年' SPC, 디자인거장 '멘디니'와 콜라보

**노벨티 제품 30종 한정 출시**

SPC그룹(회장 허영인)이 창립 70주년을 맞아 산업디자인계의 거장 알레산드로 멘디니와 함께 컬래버레이션 제품을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멘디니는 파리바게뜨·배스킨라빈스·던킨도너츠·삼립식품 등 SPC그룹 주요 브랜드의 BI(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특유의 스타일로 재해석해 머그잔·

유리잔·우산·수첩·휴대전화케이스(아이폰6 전용) 등 70주년 한정판 노벨티 제품 30종을 디자인했다.

또한 SPC그룹 각 브랜드 매장에서 사용되는 테이크아웃 종이컵, 쇼핑백도 멘디니가 디자인한 한정판으로 10월 한 달간 제공된다. 멘디니의 대표작 중 하나인 와인 오프너 '산드로M'을 SPC그룹 70주년 기념버전으로 새롭게 디자인한 '산드로M&SPC'도 11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이 제품들은 모두 한정 수량만 생산되며 DDP 전시회장 내 아트숍, 모바일쇼핑몰 '셀렉토리'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맥주 '클라우드'

롯데주류(대표 이재혁)는 6일 자사의 맥주 클라우드가 한국소비자포럼이 진행한 '2015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맥주 부문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그 해 부문별로 국내 소비자에게 노출된 모든 브랜드 중 인지도, 매출 등이 상승한 브랜드,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출한 신규 브랜드 등을 후보 브랜드로 선정한 뒤 소비자 조사를 통해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브랜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크라운제과 '크라운산도' 60년 만에 맛 변화

크라운제과의 대표 장수 과자인 '크라운산도'의 맛이 1956년 출시 이후 60년 만에 바뀐다.

크라운제과는 크라운산도의 기존 '크림, 딸기, 초코' 맛이 마스카포네치즈와 크림치즈가 더해진 '스윗밀크, 딸기크림치즈, 초코바닐라'로 재탄생하면서 이전보다 풍부하면

서 달콤상큼한 맛을 구현했다고 6일 밝혔다.

가격은 종전과 동일하고 중량을 절반으로 줄인 소용량 패키지(81)를 선보인다. 가격은 편의점 기준 1200원(81), 2200원(161), 4400원(323)이다.

# "일·가정 양립 지원하니 회사도 급성장"

연중기획 가정이 있는 직장

㉔ 티몬

## 한 달에 2회 '언터처블데이' 운영 재택근무로 워킹맘 육아고민 해소

## 연차 외 단기휴가제도 '슈퍼패스' 조기퇴근으로 개인 삶의 질 보장

소셜커머스 기업 티몬(대표 신현성)은 급격한 성장세는 물론 직원들의 처우가 좋은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성장을 지속하면서도 직원의 가정과 개인 생활을 회사 차원에서 신경쓰기 때문이다.

티몬에서 개발자로 일하는 윤천성(35·남)씨는 매일같이 인천 송도에서 서울 강남 사옥까지 출퇴근을 한다. 멀기만한 출퇴근 거리로 인해 윤 씨는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하지만 티몬이 기획자와 개발자에게 제공하는 재택근무제도 '언터처블데이'(Untouchable Day)가 도입되며 윤 씨는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언터처블데이는 한 달에 2번 기획자와 개발자가 집안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평소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워킹맘이나 아버지들이 하루 종일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됐다. 평소 마음에 걸리던 문제가 해결되며 직장에서 윤 씨의 업무능률은 더욱 향상됐다.

윤 씨에 따르면 대부분의 티몬 직원들은 회사에 대해 큰 애착을 보인다. 실제 지난 2년간의 티몬 공채입사자 중 퇴사자는 0명이다.

티몬 측은 '인력이 곧 회사의 성장'이라는 마음가짐 아래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꾸준히 실행한 결과 만족도와 함께 능률도 올랐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직접 나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게 해주는 것이다.

최근 티몬에서 가장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또 다른 제도는 '슈퍼패스(Super Pass)' 제도다.

슈퍼패스는 단기휴가제도로 직원들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퇴근해 자유시간을 누릴 수 있다. 연차휴가가 소진되지 않는 제도라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직원에게 반기마다 4회씩 부여된다.

사용목적 또한 자유롭다. 슈퍼패스 사용 직원들의 주요 사유는 '인근 야구장에 야구관람을 위해', '아내와 산부인과 검진가기 위해', '아이를 데리러 가기위해' 등 이다.

모 대기업에서 티몬으로 이직해온 이의헌씨는 "직장을 옮기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순환보직이 이뤄지는 대기업과 다르게 본인이 원하는 직무를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성장을 추구하기에도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티몬은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 양도할 수 있는 종합건강검진을 제공하며 명절에는 전국 각지 귀성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티몬 관계자는 "지난 5년간 티몬은 급격한 발전을 했으며 그 배경에는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다"며 "직원들에 대한 처우와 투자를 확대한 만큼 회사도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집에서 근무하며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티몬의 워킹맘. 티몬은 기획자와 개발자에게 한 달에 2번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언터처블데이'를 제공한다. /티몬 제공

### 티몬 가족친화경영 주요 제도

| 제도 | 세부 내용 |
|---|---|
| 언터처블데이 | 개발자와 기획자를 위해 월 2회 재택근무 기회를 제공 |
| 슈퍼패스 | 연차 외에 분기당 4회 2시간 조기퇴근 가능 |
| 명절지원 | 전국 각지 귀성버스 제공. 적립금 또는 선물 지급 |
| 건강검진 | 연 1회 종합건강검진 제공. 가족 양도 가능 |
| 대출지원 | 최대 2000만원 주택자금 대출 지원 |

# 젊은 기업, 티몬의 자랑… 최강 복지에 2년간 퇴사자 0명

## 1000여개 교육프로그램 지원 야간택시비에 조·석식 제공도

티몬(대표 신현성)의 직원들을 만나 이야기하다보면 하나같이 티몬을 최고의 직장이라고 말한다. 겉치레 정도의 말로 치부했지만 티몬의 복지 혜택 설명을 듣다 보면 어느새 이직을 꿈꾸게 된다.

2014년 감사보고서 기준 티몬의 평균 연봉은 업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받는 만큼 고생한다'는 말은 티몬에서 통하지 않는다.

사내 곳곳에 비치된 냉장고에는 각종 음료가 채워져 있으며 퇴근 후 회사 근처 고급 피트니스센터와 사우나를 언제라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개발자나 기획자같이 업무가 많은 직원들을 위해 한 달에 2번 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언터처블데이'(Untouchable Day)를 제공하며 창의적인 업무를 주로 하는 디자이너들을 위해서는 '컬러데이'(Color Day)를 개최해 각종 세미나나 포럼, 전시회에 참석할 기회를 보장한다.

명절 귀성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티몬 직원들. /티몬 제공

영업직원 대상으로 해외로 나가 우수 영업사원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세일즈 몬스터 캠프'를 분기마다 개최하고 있다.

무엇보다 업무시간이 오전 10시부터다. 남들보다 여유롭게 출근하는 것만으로 티몬의 매력은 충분하다.

티몬의 직원은 상해보험 등을 따로 가입할 필요도 없다. 상해 시 1인 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직원들을 위한 저금리 주택자금대출도 지원한다.

야근 때문에 귀가가 늦어진 직원을 위해서는 야간택시비를 지원하며 바쁜 직장인을 위한 아침·저녁 식사까지 준비하고 있다.

사내 교육 역시 평가가 우수하다. 신입사원들에게는 '뉴 티모니언 트랙'이라고 불리는 신규 입사자 교육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사원들은 사내 곳곳을 돌며 사내 시스템과 조직을 익힌다.

이러한 교육은 신입사원이 각 직군의 현장 고충을 체험하고 비즈니스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기존 직원에게는 ITT(Insight Tmonian Track), STT(Smart Tmonian Track), E러닝 등의 주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총 1000여 개의 다양한 교육을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기계발, 업무능력 향상 등을 이룰 수 있다.

사내 도서관과 스터디 제도는 직원들이 자기계발에 집중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를 조성한다.

티켓몬스터 이승민 인사기획실장은 "소셜커머스 업계가 5년 차에 접어들며 회사는 물론 직원 개개인의 성장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티몬은 체계적이면서도 자유로운 기업문화의 장점만을 잘 조합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공동기획 :

# ‘하늘캠프’서 꿈 띄워 볼까

한국공항공사
청소년 직업캠프 개최
진로체험 기회 제공

하늘캠프 참가자들이 소방구조대의 안내에 따라 체험 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제공

한국공항공사(대표 김석기)는 최근 김포국제공항과 항공기술훈련원에서 '내 꿈을 띄우는 하늘캠프'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하늘캠프는 공항과 항공 관련 전문가를 꿈꾸는 만 9~18세 청소년에게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1895호)을 받은 프로그램.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의 활동기록 확인서를 발급받아 진학과 취업 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캠프에는 30명이 공개 선발됐다. 이들은 지난 1일부터 이틀 동안 김포공항에서 보안검색 체험, 소음감시센터와 공항 소방대·항행안전시설을 견학하고 항공기술훈련원에서 관제 시뮬레이션을 실습했다.

캠프에 참여한 박성훈(16·중3)군은 “아버지가 항공 관련 회사에서 근무해 평소 항공분야에 관심이 많았다”며 “이번 캠프를 통해 한 대의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 공항에서 어떤 일들이 이뤄지는지 알게 돼 재미있고 좋았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항·항공 관련 직업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비전을 그려보고 긍정적인 미래를 탐색하는 기회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 현대百, 전통시장 살리기 팔 걷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맞손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 등 지원

왼쪽부터 이일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과 신인섭 성남중앙시장 상인회 회장, 김영태 현대백화점 사장이 업무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현대백화점 제공

현대백화점(대표 김영태)은 경기도 성남시 성남중앙시장 광장에서 전통시장·소상공인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태 현대백화점 사장과 이일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현대백화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환경 개선 ▲서비스·마케팅 등 교육 지원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 등에 대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대백화점은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백화점에서 사용되는 가구, 상품 진열대 등을 활용해 전통시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집기를 제공한다. 또 전문 교육 시스템을 활용해 마케팅및 서비스 컨설팅 등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식품 위생관리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 커먼그라운드, 한글날 맞이 장터 열린다

오전 11시~오후 6시 중앙광장

코오롱인더스트리FnC(대표 박동문)의 컨테이너 복합 쇼핑몰 커먼그라운드는 9일 한글날을 맞아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커먼그라운드 중앙광장에서는 오전 11시부터 6시까지 한글사랑 마켓이 열린다. 캘리그래퍼 장영호 씨와 늘제작소가 참여한 손글씨를 비롯해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에서 전통 디자인 문구를 판매하는 세새미, 수제도장 전문업체인 손새김 등 총 10개 한글과 관련된 업체가 참여한다.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은 캘리그래퍼 장영호씨와 늘제작소에서 각각 오후 1시~3시, 4시~6시까지 원하는 문구를 손글씨로 담은 에코백을 증정받을 수 있다.

## 이대목동병원 간호부 ‘천사데이’ 봉사활동

# 입원 환자엔 사랑의 마사지 내원 환자엔 무료 혈당 체크

이대목동병원 간호사가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발 마사지를 해주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간호부(간호부원장: 변은경)는 환자들과 내원객들을 위한 사랑의 마사지, 혈압과 혈당 체크, 사랑의 메시지 전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6일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간호부는 간호사 상징일인 10월 4일을 매년 '천사(1004)데이'로 지정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왔다.

간호사들이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손, 발, 얼굴 마사지를 해주는 '손과 발이 웃는 날' 행사가 개최됐으며, 병원 로비에서는 외래환자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건강 100세를 위한 혈압·혈당 관리' 행사가 진행됐다.

또한 변은경 간호부원장을 비롯해 간호부 과장단이 각 병동을 돌며 입원 환자들에게 의료진과 간호사가 작성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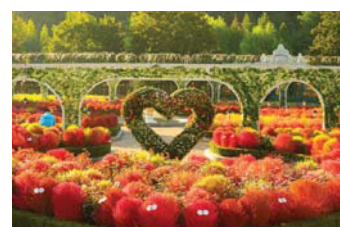
변간호부원장은 “천사 데이를 맞아 환자들의 몸은 물론 마음까지 치유하는 병원으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간호사들도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유선준 기자 rsunjun@

# 에버랜드로 ‘선홍빛’ 단풍 나들이 떠나자

25일까지 ‘코키아 페스티벌’

삼성물산 리조트건설부문(대표 김봉영)이 운영하는 에버랜드는 이달 25일까지 붉은 단풍을 구경할 수 있는 코키아 페스티벌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코키아는 '코키아 스코파리아' 학명에서 유래된 비름과 식물의 일종으로 시골집 마당이나 밭두렁 등지에서 접할 수 있는 1m 남짓의 댑싸리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단풍보다 더 붉은 단풍으로 변한다.

에버랜드는 코키아 사진을 본인의 SNS에 올린 후 해당 URL을 에버랜드 블로그에 댓글로 응모한 고객 중 16명을 선정해 카메라와 에버랜드 이용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 14개팀 500명 ‘건강운동 뽐내기’ 한마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
건강백세운동교실 축제 성료

6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제8회 건강백세운동교실 발표대회'에 14개 팀 500여명이 참가해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임재룡)는 6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아트홀에서 '제8회 건강백세운동교실 발표대회 축제한마당'을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대회에는 서울지역 600여 개 경로당 등에서 최종 선발된 '도림동 청년백세팀' 등 14개 팀 5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최고령 참가자인 박희승(97·남) 어르신 등 2명에게는 장수상이 수여됐으며 이외에도 참가자에게는 기념품과 레크레이션을 통해 상품이 지급됐다.

임재룡 국민건강보험 서울지역본부장은 “오늘 이자리는 건강을 위한 축제와 화합의 한마당”이라며 “건강백세 시대를 위해 어르신 스스로가 건강을 챙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 동국제약, 마시는 골다공증약 ‘마시본액’

국내 첫 액제… 복용불편 개선



동국제약이 국내 최초로 마시는 골다공증 치료제 '마시본액'(사진)을 출시했다.

마시본액은 액제로 만들어서 헹궈낼 정도의 물 30㎖만 마시면 된다. 특히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는 균질 용액 형태로 만들어 침전물이 남을 우려도 없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마시본액은 유럽에서 실시한 정제와의 비교 임상시험에서 상부 위장관을 빠른 속도로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약제의 제형 특성에 따른 자세에 대한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선준 기자

**star bag**

## 김지운 감독 '밀정' 합류

배우 **서영주**가 김지운 감독의 신작 '밀정'에 합류한다. '밀정'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단체 의열단과 그를 둘러싼 투사들의 치밀한 전략, 그리고 인물들의 배신과 음모를 보여주는 영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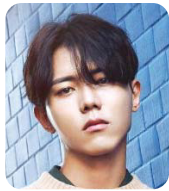
## 서정적 멜로디 첫 음반

어쿠스틱 듀오 **꽃잠프로젝트**가 첫 정규앨범 '룩 인사이드(Look Inside)'를 6일 발표했다. 꿈, 사랑, 가족, 그리고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아름답고 서정적인 멜로디로 담은 앨범이다. 총 10곡을 수록했다.

## '조선마술사' 12월 개봉

배우 **유승호**가 주연한 영화 '조선마술사'가 오는 12월 개봉을 확정했다. 위험한 사랑에 빠져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무대에 오르는 조선시대 최고의 마술사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 GMF 2015 무대 올라

모델 **주우재**가 오는 17일 열리는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2015(GMF 2015)에서 첫 페스티벌 무대에 오른다. 주우재는 이날 공개방송형 콘서트 '그대, 모든 짐을 내게'로 관객과 만난다.

## 신곡 '이름' 발표

가수 **임재범**이 6일 신곡 '이름'을 발표했다. 데뷔 30주년 기념 앨범 '애프터 더 선셋: 화이트 나잇'의 선공개곡이다. 레트로 소울 풍의 장르로 초창기 임재범의 보컬을 만날 수 있다.

영화 '성난 변호사' **이선균**

이선균(40)은 "'끝까지 간다'가 나를 많이 바꿔놨다"고 말했다. 흥행 성적과 영화제 수상 등의 결과를 떠나 "영화에 대한 책임과 태도를 돌아보게 했다"는 점에서였다. 그 변화는 인터뷰 내내 이어진 유쾌한 웃음에서도 느껴졌다.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얻은 충만함이 그 속에 있었다.

# "배우도 자신만의 신 연출할 줄 알아야"

이선균하면 멜로가 떠오르던 때가 있었다. 드라마 속 훈남 캐릭터 때문이었다. 그래서 지난해 개봉한 '끝까지 간다'는 뜻밖의 변신으로 다가왔다. 이선균은 장르영화 주인공으로서의 가능성을 십분 발휘했다. 흥행에서도 소위 말하는 '중박'을 기록했다. 대작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한국영화계에 신선함을 안겨준 의미 있는 성적이었다.

'끝까지 간다'를 마친 뒤 이선균이 선택한 작품은 오는 8일 개봉하는 '성난 변호사'(감독 허종호)다. 용의자만 있을 뿐 시체도 증거도 없는 살인사건을 맡게 된 변호사 변호성(이선균)이 뜻밖의 반전과 마주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범죄 추리 영화다. 전작처럼 장르영화라는 점이 눈에 띈다. 이선균은 "의도적인 선택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끝까지 간다'로 새로운 전환점**
**캐릭터 중심 장르영화 첫 도전**
**대작만 나오는 환경 좋지 않아**
**느와르·팩션 사극 새 도전 준비**

"한편의 영화가 잘 되면 비슷한 종류의 시나리오가 들어와요. '끝까지 간다'를 마친 뒤에는 잘 안 들어오던 형사물을 많이 받았죠(웃음). 마케팅 때문에 '성난 변호사'와 '끝까지 간다'가 비교되고 있지만 저는 두 영화가 서로 다른 질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간다'가 상황 중심이었다면 '성난 변호사'는 캐릭터가 중심이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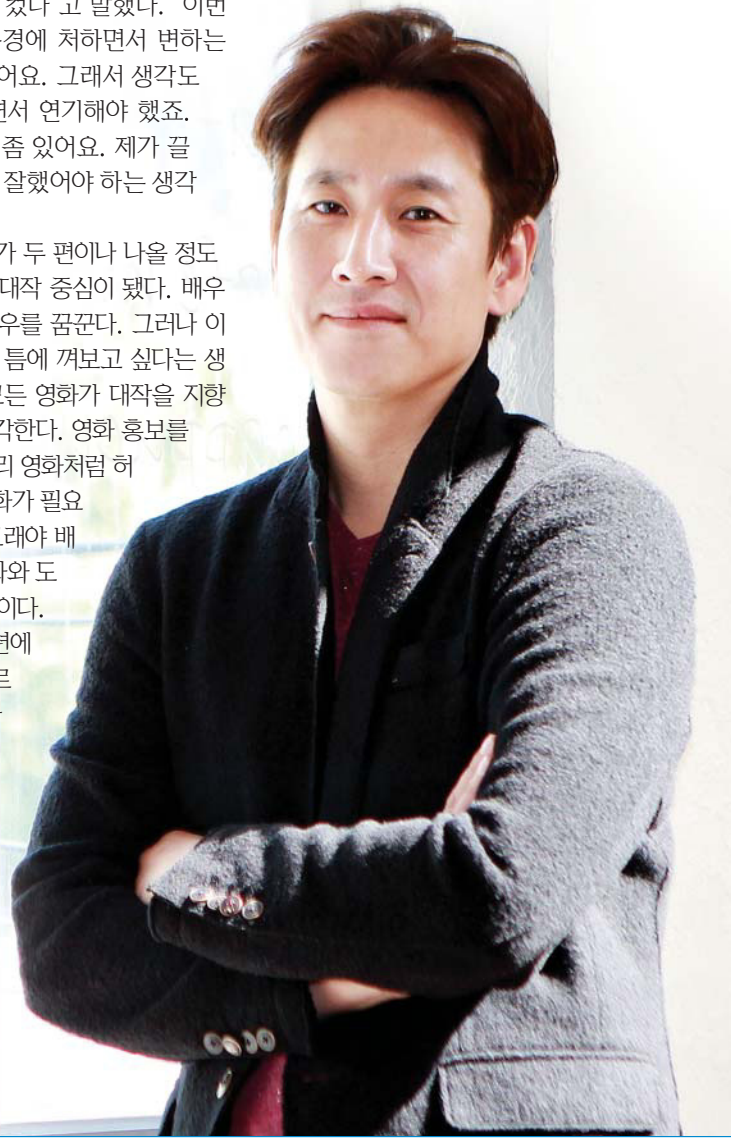
그의 말처럼 '성난 변호사'는 주인공 변호성이 영화 전체를 이끌어 나간다. 정장에 운동화, 그리고 백팩을 맨 '언밸런스'한 변호성의 캐릭터는 '성난 변호사'의 '톤 앤 매너'를 잘 보여준다. "추리극의 무거움과 캐릭터 중심의 코미디가 적절히 섞인 작품", 그것이 이선균과 허종호 감독의 의도였다.

처음 맡은 원톱 주연 영화이기도 하다. 독특하고 유쾌한 캐릭터인 만큼 연기하는 재미가 컸을 법 하다. 그러나 이선균은 "재미보다는 부담이 더 컸다"고 말했다. "이번 영화는 캐릭터가 곤경에 처하면서 변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했어요. 그래서 생각도 계산도 더 많이 하면서 연기해야 했죠. 사실 저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제가 끌고 가는 영화니까 더 잘했어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해에 천만 영화가 두 편이나 나올 정도로 한국 영화시장은 대작 중심이 됐다. 배우들도 누구나 천만 배우를 꿈꾼다. 그러나 이선균은 "천만 배우의 틈에 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모든 영화가 대작을 지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영화 홍보를 위한 말이 아니라 우리 영화처럼 허리 역할을 해주는 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배우로서도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선균의 도전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느와르 '소중한 여인'(가제)과 팩션 사극 '임금님의 사건수첩'을 준비 중이다.

"연기도 어떤 신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표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배우도 자신만의 신을 연출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언가를 뽐내고 멋있게 보이는 직업이 아니니까요. 예전에는 연출 욕심도 있기는 했어요(웃음). 하지만 지금은 배우를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 황정민·오만석, '오케피' 더블 캐스팅

**日 미타니 코우키 원작**
**황정민, 연출도 함께**

배우 황정민, 오만석이 국내에서 초연되는 뮤지컬 '오케피'에 더블 캐스팅됐다.

'오케피'는 화려한 뮤지컬 무대 아래에 있는 오케스트라 피트, 일명 '오케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뮤지컬이다. 일본의 유명 작가이자 영화감독인 미타니 코우키의 원작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황정민과 오만석은 극중 오케스트라를 총괄하는 책임자이자 극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컨덕터(지휘자)를 연기한다.

황정민은 이번 뮤지컬에서 연출도 맡았다. 지난 5년 동안 준비해온 작품이다. 극단 학전 단원시절부터 쌓아온 무대 경험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그는 "뮤지컬 '오케피'는 앙상블 없이 13명의 출연 배우가 모두 주연인 유쾌하고 사랑스러움이 가득 담긴 이야기"라며 "내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작품이다.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작품이 될 것"이라고 작품에 대한 애착을 나타냈다.

오만석은 '킹키부츠' '레베카' '그날들' 등 뮤지컬에서도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며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다. 그는 "'오케피'는 한국에 첫 선을 보이는 작품인 만큼 나 역시도 기대감이 크다.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너무 재미있어서 단숨에 읽을 정도였다. 연습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웃음과 감동으로 일상에 지친 관객들에게 치유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뮤지컬 '오케피'는 오는 12월 1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LG아트센터에서 공연된다. 오는 20일 1차 티켓박스(2015년 12월 18일~2016년 1월 10일 공연에 한함)가 오픈된다. 문의 02-6925-5600.

/장병호 기자

FashionN
매주 목요일 밤 9시
깐깐한 그녀들의 리얼검증 프로젝트
follow me 6
더 강력해진
그녀들이 온다!
지나 / 아이비 / 황승언
t.cast
E channel
SCREEN
DRAMAcube
FashionN
CINEf
CHAMP
FOX
FOX life
FX

# 서울시향이 전하는 가을의 음률

## 관악부터 실내악까지 한 달간 클래식 공연

서울시립교향악단은 10월 한 달 동안 실력파 연주자들과 함께 하는 풍성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0일 오후 4시에는 서울시향 관악파트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는 '서울시향 비바 시리즈: 비바! 윈즈'를 국립극장 청소년하늘극장에서 연다.

2014년 첫 선을 보인 뒤 4회째를 맞은 '비바 시리즈'는 클래식 음악의 고정 관념과 경계를 허무는 프로그램에 친절한 해설을 더했다. 매회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있는 악기군을 주제로 공연을 펼치며 오케스트라의 부분과 전체가 앙상블을 이루는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

이번 '비바 시리즈: 비바! 윈즈'에서는 관현악단에서 다양한 음색을 내는 관악 연주자들이 무대 전면에 나선다. 전반부는 하이든 '디베르티멘토' 1악장, 러시아 작곡가 스비리도프의 '눈보라' 등 목관악기를 위한 작품과 함께 악기 소개를 할 예정이다. 후반부는 얀 쿠치아가 금관오중주를 위해 작곡한 '어린이 서커스', 미국 줄리어드 음대 교수인 에릭 이와즌의 '금관 교향곡' 등이 준비돼 있다.

'서울시향 비바 시리즈: 비바! 윈즈'. /서울시향 제공

오는 16일 오후 8시에는 '정명훈의 브람스 이중 협주곡' 무대가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정명훈 예술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 협주곡', 바르토크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을 연주한다.

브람스의 '이중 협주곡'은 호흡이 검증된 솔리스트 두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 무대에서는 서울시향 악장이며 뛰어난 독주자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스베틀린 루세브와 이탈리아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관현악단 수석이자 지휘자로 활약중인 첼리스트 루이지 피오바노가 협연자로 나선다.

후반부에는 바르토크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을 선보인다.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과 함께 20세기의 고전 레퍼토리로 자리잡은 작품으로 민족적이면서 모던한 바르토크의 음악적 특성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오는 23일 오후 7시30분에는 세종체임버홀에서 '실내악 시리즈: 포레스트 스페셜 II'를 개최한다. 근대 프랑스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가브리엘 포레의 작품을 조명하는 무대다. 포레 실내악의 전·후반기를 각각 대표하는 '피아노 사중주 1번'과 '피아노 삼중주, Op. 120'을 선보인다. 소품으로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로망스'와 '두 대의 첼로를 위한 초견용 소품'을 연주한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 재즈·기타로 만나는 새롭게 변신한 '산조'

한국 전통 음악 '산조'가 프랑스의 정상급 재즈피아니스트와 한국의 대표 기타리스트의 작곡과 연주로 새로운 옷을 입는다.

국립국악원(원장 김해숙)은 15~17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과 피아니스트 로랑 퀸지니와 기타리스트 함춘호,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이 협연하는 '산조하조(散調何造)' 공연을 김경희 숙명여대 교수의 지휘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예술감독 류형선)이 창작 국악의 외연을 넓히고 국악관현악의 정체성과 세계화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한 것이다.

예매는 국립국악원 누리집, 인터파크 또는 전화 (02-580-3300)로 가능하다. /이예진 기자

## TV 하이라이트

### 평화로운 마을의 비밀

◆ SBS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오후 10시

10년 연속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될 정도로 평화로운 마을 '아치아라'에 어느 날 한소윤(문근영 역)이 찾아온다. 그가 발을 들인 이후 마을 뒷산에 오랫동안 암매장 되어있던 시체가 발견된다. 이후 평화로운 마을이 서서히 변해간다. 삼수 끝에 경찰이 된 박우재(육성재 역)는 수사를 향한 강한 열망을 갖고 있었지만 시골 파출소 생활에 지쳐가던 중 사건을 마주하고 진실 추적에 나선다. /정리=하희철 기자 hhc@

◆ MBC '라디오스타' 오후 11시 15분

충무로가 사랑하는 남자들 박혁권, 이병헌, 박병은, 조달환이 스튜디오를 찾는다. 스크린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이들은 의외의 예능감 넘치는 입담과 애드리브를 선보인다.

◆ KBS2 '내편, 남편' 오후 8시 55분

캐나다 남편 졸탄 폴 잼버가 한국인 친구를 만나는 법이 그려진다. 1차를 메기 매운탕집에서 보낸 그는 2차로 포장마차 불닭발에 도전해한 국인의 매운맛 탐험에 나선다.

◆ JTBC '연쇄쇼핑가족' 오후 11시

인기 쇼호스트 김미진이 게스트로 나와 다이어트 상품의 모든 것을 공개한다. '먹방계의 절대강자' 이영자와 '신흥강자' 문세윤은 다이어트 에피소드 대결을 펼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일(수)

| KBS1 | KBS2 | MBC | SBS | JTBC | MBN | tvN | FOODTV |
|---|---|---|---|---|---|---|---|
| 05:00 KBS 뉴스<br>05:10 내 고향 스페셜<br>06:00 KBS 뉴스광장<br>07:50 인간극장<br>08:25 아침마당<br>09:30 KBS 뉴스<br>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br>10:55 별별가족<br>11:00 네트워크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 06:00 2TV 아침 1부<br>07:00 2TV 아침 2부<br>08:00 KBS 아침 뉴스타임<br>0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br>09:40 여유만만<br>10:40 지구촌 뉴스<br>11:00 장사의 신 – 객주 2015 (재) | 05:00 MBC 뉴스<br>05:10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br>06:00 MBC 뉴스투데이 1부<br>06:25 MBC 뉴스투데이 2부<br>07:50 이브의 사랑<br>08:30 생방송 오늘 아침<br>09:30 MBC 생활뉴스<br>09:45 기분 좋은 날<br>11:00 엄마 (재) | 05:00 SBS 5 뉴스<br>05:10 굿모닝 510-생활의 발견<br>06:00 모닝와이드 (1~3부)<br>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br>09:10 좋은아침<br>10:00 SBS 뉴스<br>10:30 SBS 생활경제<br>11:30 웃찾사 스페셜 | 06:00 수상한 미용실 살롱 드림(재)<br>07:00 아웅다웅 동화나라 시즌2 (재)<br>07:30 JTBC NEWS 아침 &<br>09:00 냉장고를 부탁해 (재)<br>10:15 비정상회담 (재)<br>11:25 히든싱어 4 (재) | 05:50 휴먼다큐 사노라면 (재)<br>06:50 굿모닝 MBN<br>08:00 아침엔 매일경제<br>09:20 뉴스파이터<br>10:30 전국네트워크뉴스<br>10:40 알토란 (재)<br>11:5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 06:00 SNL 코리아 꿀잼 에디션<br>06:30 삼시세끼 정선편 (재)<br>08:10 응답하라 1994 (재)<br>09:40 울지 않는 새<br>10:30 집밥 백선생 (재)<br>11:50 막돼먹은 영애씨 14 (재) | 05:00 레시피 공작소<br>05:30 루이의 니하오 키친<br>06:30 나를 바꾸는 30분<br>07:00 찾아라! 팔도 맛지도<br>07:30 식신로드 시즌2(재)<br>08:30 테이스티 월드<br>09:00 푸드 헌터<br>09:30 알뜰 장보기 정보 (재)<br>10:00 세기의 기행 판소리의 맛과 멋<br>11:00 명물인생<br>11:30 Chopped Canada |
| 12:00 KBS 뉴스 12<br>13:00 역사저널 그날 (재)<br>13: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br>14:00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여기는 문경<br>15:55 튼튼생활체조<br>16:00 오늘의 경제<br>16:10 다큐 공감 (재)<br>17:00 KBS 뉴스 5<br>17:20 시사진단 | 12:50 인간극장 스페셜<br>14:00 KBS 뉴스타임<br>14:10 세상의 모든 다큐 (재)<br>15:05 후토스-잃어버린 숲 (재)<br>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br>16:00 TV 유치원<br>16:3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재)<br>16:40 동물의 세계<br>17:00 600회 기획 비타민 (재) | 12:00 MBC 정오뉴스<br>12:20 내 딸, 금사월 (재)<br>13:30 키즈 사이언스 5 (재)<br>14:30 뚝?뚝! 키즈스쿨<br>15:00 MBC 뉴스<br>15:10 마법천자문<br>15:40 경제매거진 M 스페셜<br>16:25 딱 너 같은 딸 (재)<br>17:00 MBC 이브닝 뉴스 | 12:00 SBS 12뉴스<br>12:50 육룡이 나르샤 (재)<br>14:00 영재발굴단 (재)<br>15:00 SBS 뉴스<br>15:10 SBS 이슈 인사이드<br>16: 00 민영방송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다<br>16:30 한글날 특집 꾸러기 탐구생활<br>17:00 SBS 뉴스 퍼레이드<br>17:30 바이클론즈 | 13:15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재)<br>14:35 JTBC 뉴스 현장<br>15:50 4시 사건 반장<br>17:10 5시 정치부 회의 | 1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br>14:1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br>15:30 뉴스 BIG 5<br>16:50 뉴스&이슈 | 13:10 막돼먹은 영애씨 14 (재)<br>14:30 현장토크쇼 TAXI (재)<br>15:40 두번째 스무살 (재)<br>17:00 두번째 스무살 (재) | 12:30 식신로드 시즌2 (재)<br>13:30 스타 뉴스<br>14:30 한국의 맛 시즌2<br>15:00 세기의 기행 판소리의 맛과 멋<br>16:00 필로교수의 쿠킹콘서트 한우예찬 (재)<br>17:00 활력 충전 건강이 보인다 (재)<br>17:30 알뜰 장보기 정보 (재) |
| 18:00 6시 내고향<br>18: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br>19:00 KBS 뉴스 7<br>19:30 사람과 사람들<br>20:25 가족을 지켜라<br>21:00 KBS 뉴스 9<br>22:00 생로병사의 비밀<br>23:00 KBS 뉴스라인<br>23:40 문화빅뱅 더 콘서트<br>24:50 아시아 영화의 힘 | 18:00 글로벌 24<br>18:30 2TV 저녁 생생정보 1<br>19:50 다 잘될 거야<br>20:30 2TV 저녁 생생정보 2<br>20:55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br>22:00 장사의 신 – 객주 2015<br>23:10 추적 60분<br>24:10 스포츠 하이라이트<br>24:35 세상의 모든 다큐 | 18:10 생방송 오늘 저녁<br>19:15 위대한 조강지처<br>19:55 MBC 뉴스데스크<br>20:55 딱 너 같은 딸<br>21:30 리얼스토리 눈<br>22:00 그녀는 예뻤다<br>23:10 라디오스타<br>24:30 MBC 뉴스 24<br>24:5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 18:00 프레지던츠컵 골프 개막식<br>19:20 돌아온 황금복<br>20:00 SBS 8 뉴스<br>20:55 영재발굴단<br>22:00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1회)<br>23:15 한밤의 TV연예<br>24:35 나이트라인 | 18:20 비정상회담 (재)<br>19:40 연금복권 520<br>19:55 JTBC 뉴스룸<br>21:30 유자식상팔자<br>22:50 연쇄쇼핑가족<br>24:15 냉장고를 부탁해 스페셜 | 18:10 MBN 뉴스와이드<br>19:40 MBN 뉴스 8<br>20:40 엄지의 제왕 (재)<br>21:50 나는 자연인이다<br>2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br>24:20 속풀이쇼 동치미 (재) | 18:20 집밥 백선생 (재)<br>19:40 고성국의 빨간 의자<br>20:40 코미디 빅리그 (재)<br>21:40 수요미식회<br>23:00 집밥 백선생 (재)<br>24:20 비밀독서단 (재) | 18:00 Mystery Dinners<br>19:00 집밥의 여왕<br>20:30 최현석의 크레이지타임 (재)<br>21:00 Roadtrip With G.Garvin<br>21:30 Andy Bates : American Street Feasts<br>22:00 Chopped Canada<br>23:00 오감도 (재)<br>24:00 식신로드 시즌2 (재) |

# 박인비 아시아로 옮긴 골프여제 대전 리디아 고

## '아시안스윙' 사임다비 LPGA 말레이시아 내일 개막

박인비(27·KB금융그룹)와 리디아 고(18)의 여자골프 1인자 경쟁이 아시아로 무대를 옮겨 다시 시작된다.

골프대항전 솔하임컵 개최 관계로 잠시 정규대회를 쉬었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는 8일(한국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사임다비 LPGA 말레이시아(총상금 200만 달러·약 23억원)를 시작으로 '아시안 스윙'에 들어간다.

아시안 스윙이란 사임다비 대회를 시작으로 KEB하나은행 챔피언십(한국 인천), 푸본 LPGA 타이완 챔피언십(대만 타이페이), 블루베이 LPGA(중국 하이난), 토토 재팬 클래식(일본 미에현)으로 이어지는 5개 대회를 뜻한다. 지난해에는 중국에서 '레인 우드 LPGA 클래식'이 열렸지만 올 시즌엔 스폰서 측 문제로 대회가 취소돼 5개 대회로 줄었다. 지난 2014년 아시안 스윙 6개 대회에서 한국은 역대 아시안 스윙 최다승인 4승을 달성했다.

쿠알라룸푸르 골프앤드컨트리클럽(파71·6246야드)에서 나흘간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선수는 박인비와 리디아 고다.

박인비

리디아 고

박인비와 리디아 고는 올 시즌 1인자 자리를 놓고 팽팽한 접전을 벌여왔다. 현재 세계랭킹 1위는 박인비이지만 근소한 차이로 2위 리디아 고가 뒤를 쫓고 있다. 시즌 승수에서도 박인비와 리디아 고는 4승씩을 거두며 팽팽히 맞섰다. 상금랭킹에서도 박인비는 231만6000달러(약 26억원)로 1위, 리디아 고는 그에 조금 모자란 219만 달러(약 25억원)로 2위다.

6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서 박인비는 2012년에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반면 리디아 고는 2014년 처음 출전한 이 대회에서 공동 8위를 차지하는 만만찮은 실력을 뽐냈다.

이들 두 명의 상위 랭커와 함께 지난해 우승자 펑산산(중국), 2013년 우승자 렉시 톰프슨(미국), 스테이시 루이스(미국), 유소연(25·하나금융그룹) 등 '톱10' 안에 드는 선수들도 출전, 우승 경쟁을 한다.

이 밖에 추석 연휴 전에 국내에서 열린 YTN·볼빅여자오픈에서 우승을 챙긴 장하나(23·비씨카드), 신인왕 부문 1·2위를 달리는 김세영(22·미래에셋), 김효주(20·롯데)도 출전해 승수 사냥에 나선다.

/하희철 기자 hhc@metroseoul.co.kr

## 골프계 '별들의 전쟁' 막올라

**2015 프레지던츠컵**

###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서 6일부터 공식 일정 돌입

2015 프레지던츠컵 골프대회가 6일 연습라운드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격전지인 인천 송도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양팀 단장을 비롯한 선수들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대회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다.

프레지던츠컵 골프대회는 1994년 창설됐으며 격년제로 열린다. 역대 성적은 미국이 8승1무1패로 압도적인 우세다.

미국과 인터내셔널(유럽 제외)팀의 대항전인 프레지던츠컵은 양팀 12명씩 총 24명의 선수가 출전해 포섬과 포볼, 싱글 매치플레이 등의 경기로 승부를 정한다.

6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 미국·인터내셔널팀 선수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회 방식은 8일 포섬 5경기, 9일 포볼(2명이 1조로 각자의 공으로 경기, 좋은 성적을 그 팀의 점수로 삼는 방식) 5경기가 열리고 10일 오전에는 포섬 4경기, 오후에 포볼 4경기가 이어진다. 대회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12개의 싱글 매치플레이가 열려 우승팀을 정한다. 매 경기에서 이긴 팀이 1점을 가져가며 연장전없이 무승부로 끝나면 0.5점씩 나눠 갖는다.

대회 상금은 없으며 대회 수익금은 자선 단체에 전해진다. 2013년 대회에서 모인 기부금만 465만 달러(약 54억원)에 이른다. 대회 주관 방송사인 SBS와 SBS골프가 매일 생중계한다.

/하희철 기자

## 부산 상무, 브라질과 준결승서 격돌

### 세계군인체육대회 여자축구 미국과 2차전서 2-0 승리

국군 여자 축구팀 부산 상무가 결승행 티켓을 두고 브라질과 한판 승부를 앞두고 있다.

이미연 감독이 이끄는 상무는 오는 7일 열리는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여자 축구 준결승전에서 브라질과 격돌한다.

한국은 조별예선에서 1승1패(승점 3점)를 기록, 조 2위로 예선을 통과했다. 프랑스와의 1차전에서는 선제골을 넣고도 역전패를 당했지만, 미국과의 2차전에서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2-0 승리를 챙겼다.

대진표에 따라 B조 1위 브라질과 만난다. 브라질은 예선에서 네덜란드를 1-0으로 꺾은 뒤 독일과 1-1로 비겨 1승1무(승점 4점)를 기록했다.

세계 최정상급으로 군림하는 남자 축구와 달리 브라질의 여자 축구는 세계 최고 수준은 아니다. 지난 6월 국제축구연맹(FIFA) 캐나다 여자월드컵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16강에서 탈락했고, 여자월드컵 우승 경력도 없다.

그럼에도 브라질은 브라질이다. 자국 내 높은 축구의 인기로 인해 여자 축구의 기반 역시 한국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다. 여자월드컵이 처음 열린 지난 1991년 중국 대회부터 꾸준히 참가한 몇 안 되는 국가이기도 하다.

이번 상대가 군인들로 구성된 팀임에도 방심할 수 없는 이유다.

하지만 상무의 분위기도 좋다. 프랑스전에 역전패를 당하기는 했지만, 예선 2경기에서 모두 선제골을 기록했다. 특히 미국을 상대로는 슈팅 26개를 날리는 등 막강한 공격력을 뽐냈다.

지난 1일 오전 경상북도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여자축구 예선전 한국과 프랑스의 경기. 한국 송다운이 슛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브라질과의 경기 역시 선제골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또한 예선 2경기에서 모두 선제골을 넣어 매번 승점을 챙겼다.

한국은 지난 캐나다월드컵 본선에서 브라질과 맞붙어 0-2로 졌다. 국군 대표로 태극마크를 단 상무가 브라질을 꺾고 설욕에 성공할지 기대된다.

한편 대회 이색 종목으로 관심을 끌었던 육군5종은 이날 남자 개인 및 단체, 여자 개인 및 단체 등 4개 금메달의 주인이 가려진다.

육군5종은 국제 스포츠 종합대회에서는 오직 군인체육대회에서만 접할 수 있는 종목이다. 사격, 장애물달리기, 장애물 수영, 투척, 크로스컨트리 등 5개 세부종목의 결과를 합산해 순위를 메긴다.

/뉴시스

## 슈틸리케호, 결전지 쿠웨이트 입성

축구 대표팀의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6일 오전(한국시간) 쿠웨이트국제공항에 도착해 교민 어린이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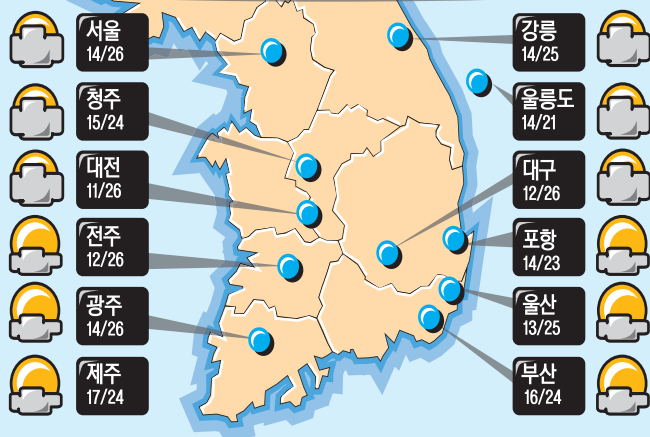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18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 예선 직행을 위해 쿠웨이트에 입성했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5일 오후(한국시간) 인천공항을 출발해 약 15시간의 장도 끝에 6일 새벽 쿠웨이트 공항에 도착했다.

대표팀은 두바이를 경유해 쿠웨이트까지 오는 다소 힘든 여정과 한국보다 6시간 늦은 시차 탓에 공항에 도착하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입국장에는 미리 나온 쿠웨이트 교민 자녀 6명이 슈틸리케 감독과 선수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대표팀을 환대했다.

쿠웨이트에 도착한 대표팀은 21명 가운데 K리거(7명)와 중국·일본리그(4명) 등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카타르에서 활약하는 남태희(레퀴야)도 공항에서 합류했다. 이어 중동과 유럽에서 뛰는 다른 선수 9명도 합류하게 된다.

슈틸리케호는 8일 밤 쿠웨이트 시티 국립경기장에서 쿠웨이트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G조 원정 경기를 치른다.

/하희철 기자

##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 | | | | | | | | |
|---|---|---|---|---|---|---|---|---|
| | 5 | | | 3 | 4 | | | 1 |
| | 4 | | | | | | | |
| 1 | | 3 | | | 9 | 4 | | |
| | | 2 | 3 | | 5 | | | |
| | 3 | | | 4 | | | 8 | |
| | | | 8 | | 7 | 5 | | |
| | | 9 | 2 | | | 3 | | 5 |
| | | | | | | | 6 | |
| 8 | | | 9 | 7 | | | 1 | |

| | | | | | | | | |
|---|---|---|---|---|---|---|---|---|
| 3 | | | | 6 | | | 1 | |
| | | 1 | 2 | | | | | 3 |
| | 7 | 2 | | 8 | 3 | | 6 | |
| | | | 7 | | | | 3 | |
| | 1 | | | 3 | | | 8 | |
| | 4 | | | | 9 | | | |
| | 8 | | 5 | 9 | | 3 | 7 | |
| 4 | | | | | 1 | 8 | | |
| | 3 | | | 7 | | | | 9 |

### 스도쿠 정답

| | | | | | | | | |
|---|---|---|---|---|---|---|---|---|
| 2 | 5 | 8 | 7 | 3 | 4 | 6 | 9 | 1 |
| 6 | 4 | 9 | 1 | 2 | 8 | 7 | 5 | 3 |
| 1 | 7 | 3 | 5 | 6 | 9 | 4 | 2 | 8 |
| 7 | 8 | 2 | 3 | 6 | 5 | 1 | 4 | 9 |
| 5 | 3 | 1 | 6 | 4 | 2 | 9 | 8 | 7 |
| 6 | 9 | 4 | 8 | 1 | 7 | 5 | 3 | 2 |
| 4 | 1 | 9 | 2 | 8 | 6 | 3 | 7 | 5 |
| 3 | 2 | 7 | 4 | 5 | 1 | 8 | 6 | 9 |
| 8 | 6 | 5 | 9 | 7 | 3 | 2 | 1 | 4 |

| | | | | | | | | |
|---|---|---|---|---|---|---|---|---|
| 3 | 5 | 4 | 9 | 6 | 7 | 2 | 1 | 8 |
| 8 | 6 | 1 | 2 | 4 | 5 | 7 | 9 | 3 |
| 9 | 7 | 2 | 1 | 8 | 3 | 4 | 6 | 5 |
| 5 | 2 | 8 | 7 | 1 | 6 | 9 | 3 | 4 |
| 6 | 1 | 9 | 4 | 3 | 2 | 5 | 8 | 7 |
| 7 | 4 | 3 | 8 | 5 | 9 | 6 | 2 | 1 |
| 1 | 8 | 6 | 5 | 9 | 4 | 3 | 7 | 2 |
| 4 | 9 | 7 | 3 | 2 | 1 | 8 | 5 | 6 |
| 2 | 3 | 5 | 6 | 7 | 8 | 1 | 4 | 9 |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 생활 영어

### Do you have time?

A: Do you have time?

B: Sure, what is it?

A: Do you have any appointment after work?

B: No, nothing tonight. Why?

A: Can you help me with my proposal?

B: Do you have the proposal now? Let me have a look at it first.

A: Here it is.

B: Let me see. It's almost done. Sure, I can help finishing it up.

A: Thanks so much.

* have가 들어간 문장 앞에 조동사 do를 붙여 Do you have / Does she have~? 로 질문하면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 시간 있어요?

A: 시간 있어요?

B: 그럼요, 뭔데요?

A: 퇴근 후에 약속 있나요?

B: 아니요. 오늘 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A: 제 제안서 작성하는 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B: 지금 그 제안서 갖고 있나요?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A: 여기 있어요.

B: 어디 보자. 거의 끝냈군요. 그래요, 마무리하는 걸 도와줄 수 있어요.

A: 정말 고마워요.

**Words**

appointment 약속
proposal 제안서
after work 퇴근 후에
finish up 마무리하다

##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 3년전 마음에 품었던 여성을 잊지 못합니다
### 내년 하반기 새로운 인연과 성혼 이루실 듯

우진 남자 76년 11월 11일 음력 10시
여자 84년 6월 17일 양력

**Q** 김 선생님의 글에서 인생에 대해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늘 감사드립니다. 제대로 된 연애를 많이 해본 적이 없는 숙맥인 남자입니다.

2년 반 전에 서로 썸을 탔던 아름다운 여성을 잊지 못해서 고민입니다. 종교단체에서 알게 된 여성으로서 첫 눈에 빛으로 다가온 참 아끼고 보살펴주고 싶었던 친구였습니다. 일반 여성과는 달리 이 친구는 참 다가가기 어려운 친구였고 참 묘한 매력이 있던 친구였습니다.

설악산 봉정암까지 올라가 이 친구와의 연을 이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었던 그 추억이 가을하늘 붉은 노을과 함께 가슴시리도록 아련하게 밀려옵니다.

**A** 옛 어른들의 말씀에 '나의 인연은 따로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예상치 못했던 인연이 다가오기도 하고 쭉 머무르고 있던 숨은 인연이 있는가 하면 잠깐 동안 스쳐지나가는 인연도 있습니다.

나쁘다고 생각했던 인연이 좋아지기도 하고 좋은 인연이라 생각했는데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부의 연을 맺는 인연은 따로 있습니다. 그 외에 인연에 대해 너무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아파하지도 말아야 할 것은 그냥 내 인연이 아니었던 것뿐입니다.

태어난 날에 지살(地殺)이 존재하는데 늘 새로운 환경과 시작을 사랑하여 대개 실패가 잦습니다. 지살의 기운은 장수와 군마에 비유되며 시발이요 다시 말해 새로운 일의 초석이 되기도 하며 새로운 계획을 실행하는데 일생에 걸쳐 변동과 변화가 무상하므로 비현실에서 지내게 됨을 암시하니 추억의 사람을 만나도 다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변화를 추구하니 안정이 어렵게 됩니다.

분주다사하다보면 안정감을 잃게 되니 부부 궁이 온전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마음을 추스려 떠난 그분을 사랑하신다면 편하게 해주시는 가운데 그분 곁에서 지켜본다는 심정으로 사랑하시면 됩니다.

아쉽지만 그 여자 분과는 결혼 궁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귀하에게 2016년과 하반기에 연분이 생겨 성혼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귀하께서 심장을 쥐어뜯고 싶을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곁에서 지켜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면 지나간 추억의 예쁜 사랑으로 가슴에 묻어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도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인연들을 생각하며 따뜻하게 반길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 신점[神占] 운세 10월 7일 (음 8월 25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병세가 심각합니다. **60년생** 자신의 실수로 비롯된 일입니다. **72년생** 어려운 때를 만나 길을 잃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84년생** 천천히 되집어 보세요.

**49년생** 체통을 잃으면서도 이득을 보려 하지 마세요. **61년생** 희망 없는 일에 재물과 노력을 허비합니다. **73년생** 여아를 출산하겠으나 태아가 허약합니다. **85년생** 동남방이 길방입니다.

**50년생** 어려운 일을 능히 이겨내기 좋은 일만 생깁니다. 62년생 소송이 있다면 승소할 수 있겠습니다. **74년생** 고난이 따르게 되나 얻는 것이 많습니다. **86년생** 애정운이 좋습니다.

**51년생** 동쪽 물가를 조심하세요. **63년생** 구설수와 언행을 주의하세요. **75년생** 막혔던 자금줄이 열리고 도움을 얻습니다. **87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52년생** 기분이 상쾌하고 좋은 날입니다. **64년생** 대인관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76년생**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법입니다. **88년생** 할 일이 아직도 많으니 피곤합니다.

**53년생** 스스로의 판단을 믿으셔야 합니다. **65년생** 본인의 생각을 확실히 밝히는 게 좋습니다. **77년생** 부부, 이성과의 갈등이 우려되니 주의하세요. **89년생** 불확실한 일은 추진하지 마세요.

**54년생**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66년생** 낭비를 줄이고 더 검소한 생활이 필요합니다. **78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히 추진하세요. **90년생**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55년생** 계속 일을 추진하면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67년생** 도움을 받아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잘 풀립니다. **79년생** 직장에서 인정 받고 명예가 오릅니다. **91년생** 금전운이 좋으니 이득이 있습니다.

**56년생** 자신감 있게 추진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68년생** 고생 끝에 원하던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80년생** 실천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세요. **92년생** 금전운이 좋지 않으니 자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57년생** 유혹에 주의하십시오. **69년생** 직장운이 풀리니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81년생** 동료나 친구와 협력하게 되고 일이 잘 풀립니다. **93년생** 친구들과 만나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58년생** 명예가 오르는 길한 하루입니다. **70년생** 부부와 가족간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82년생** 사업운이 길하고 사세가 확장되겠습니다. **94년생** 친구나 동료간에 사소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59년생** 빌려준 돈이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71년생** 회식이나 모임에 가면 행운이 있습니다. **83년생**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95년생** 지나친 음주나 과식은 금물입니다.

# 감기에 좋은 한방차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가을철 몸이 약해졌다는 신호는 감기로 온다. 면역력이 약한 아이나 노인은 물론이고 일에 치여 바쁘게 생활하느라 건강 관리에 소홀한 직장인들 역시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 감기에 걸리기 쉽다.

유자차는 비타민 C를 비롯해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면역력 증진에 효과적이다. 몸이 축 처지고 스트레스로 예민해져 있을 때 유자차를 자주 마시면 기운을 북돋울 수 있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진대사도 활성화된다. 감기로 인한 기침, 가래 등의 완화에 도움이 되며, 해독 작용이 강해서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날씨가 추워질 때 몸이 찬 음인들은 컨디션이 나빠지기 쉽다. 몸에 냉기가 가중되면서 추위를 많이 느끼고 기혈의 순환도 나빠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된다. 몸이 찬 사람들에게는 맵고 더운 성질을 가진 생강이 좋다. 생강을 얇게 저며서 뜨거운 물에 잘 우려내 자주 마시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며,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몸의 활력을 높이는 데 좋다. 생강의 진저롤 같은 항산화 성분들은 염증 해소, 통증 완화에 좋고, 호흡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연근도 호흡기에 좋다. 기침과 가래를 가라앉히며 호흡기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연근에는 이눌린, 올리고당 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 연근의 뮤신 성분은 위장 기능을 촉진해서 감기로 식욕이 떨어졌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좋다.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며 혈당과 혈압을 낮추기 때문에 비만을 비롯해서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찬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맞으며 몸이 찬 사람들은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감기 중 가장 불편한 코감기로 고생할 때는 검지 손톱의 바로 옆 부분인 '상양'과 바깥쪽 복사뼈의 바로 아래 부분인 '신맥', 콧방울의 바로 양 옆 약간 오목한 부위인 '영향'을 자주 마사지하면 염증 해소, 코 막힘 완화 등에 도움이 된다.

# 판사들, 개정시간도 안지키고 '사법 신뢰' 바라나

**기자 수첩**

유 선 준 <사회부>

"왜 재판이 늦게 시작하지? 개정시간이 잘못된 거야?"

최근 기자가 찾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법정에서 참관인들이 이 같은 볼멘소리를 해댔다. 재판부의 지각으로 개정시간보다 20분이 지나 재판이 열렸기 때문이다.

뒤늦게 나타난 재판장은 지각한 이유에 대해 한마디 해명도 없이 곧바로 재판을 시작했다.

참관인들은 이 같은 상황에 황당해하며 웅성거렸지만 되레 조용히 하라는 재판장의 불호령에 곧 법정 안이 조용해졌다. 괜히 따지다가 법정에서 소란 피운다고 감치형을 받을 수 있어 다들 참는 분위기였다.

사실 기자는 수년 동안 법조를 출입하면서 이 같은 상황을 심심찮게 봐왔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다. 다만 법대로 해야할 판사들이 개정시간도 못지켜서야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항상 가지고 있었다.

물론 개정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게 법으로 강제되는 것도 아니고, 판사들의 업무량이 많아 개정시간을 간혹 놓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재판 당사자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자 국민과의 신뢰성으로 접근한다면 법원과 재판부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매년 대법원이 예하 법원에 '공판 개정시간을 엄수하라', '공판에 늦었을 경우 해명을 하라'는 지침을 하달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매년 지켜지지 않는 문제에 이제는 법원이 간과하지 말고 심각성을 인식할 때다.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려고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개정시간 지키기와 같은 작은 부분부터 실천해야 국민이 사법부를 믿을 것이다.

## 장영민 교수 유기천법률문화상 수상

제3회 유기천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장영민(사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정됐다고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이사장 유훈)이 5일 밝혔다. 장 교수는 한국법철학회장, 한국형사법학회장 등을 역임하며 35년간 형법과 법철학 분야에서 다양한 업적을 쌓고 관련 저서를 낸 공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뽑혔다. 시상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유기천의 생애와 사상' 심포지엄에서 진행된다. 유기천(1915~1998) 교수는 서울대 총장을 지냈으며 한국 형법학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이다.

### 인 사

◇해양수산부 △임명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김동희

◇EBN ▷편집국장 이상준 ▷편집국 경제2부 부장대우 박용환

◇모두투어네트워크 △이사대우 승진 ▷이대혁 ▷염경 수▷박운택 ▷정의식

◇부산외국어대학교 ▷행정관리실장 김기범 ▷대학창조일자리센터장 황귀연 ▷외국어연구소장 김민회 ▷국제통상경영대학원장 정철호 ▷국제통상경영대학원부원장 안창규

◇미래에셋증권 △팀장 전보 ▷VIP해외주식팀 김주홍 ▷혁신추진팀 정지광 ▷PI팀 황영진

### 부 고

▲문태순씨 별세, 강희락(전 경찰청장)·희영씨 모친상=5일 오전 5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7일 오전 5시, 장지 경북 성주군 선영(02-2258-5940)

▲ 나재임씨 별세, 진석규(신협중앙회 사업대표이사)씨 모친상=5일 오후 9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8일 오전 8시(02-3410-6901)

▲ 장지택씨 별세, 이원우(MBC경남 영상국장)씨 장인상=6일 오전 8시 10분, 경북 포항시 흥해경희요양병원 장례식장 101호, 발인 8일 오전 9시(054-262-4411)

▲ 이강금씨 별세, 전현기(청주시 도시재생과 주무관)씨 모친상=5일 오전 6시 40분, 청주 성모병원 장례식장 5분향실, 발인 7일 오전 9시(043-210-5185)

▲ 정발선씨 별세, 구재용(전 인천시의원)씨 모친상=5일 오전, 인천 신세계장례식장 301호, 발인 7일 오전(032-568-4000)

▲ 김순봉씨 별세, 최영인(안양시 체육생활과장)씨 장인상=5일 오전 9시 10분, 안양장례식장, 발인 7일 오전 7시(010-4328-2807)

社說

# 실업급여 너무 인색해선 안된다

실업급여 받기가 앞으로 더 까다로와질 것 같다. 6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보면 한 직장에서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간조건이 종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근무'보다 길어진 것이다. 구직활동 요건도 '2주 1회 이상'에서 '1주 1회 이상'으로 늘어난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아진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이 지난달 발의한 노동개혁 5대 법안 가운데 하나이다. 해고가 쉬워지는 대신 제시된 '당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당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 더욱이 실업자가 서둘러 재취업할 때 지급되는 조기재취업수당도 폐지된다. 실업자가 조기에 재취업할 때 누리는 자그마한 '보람'조차 박탈되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의도하는 대로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보다 해고된 이후의 생활비 걱정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개정안이 그런 걱정을 얼마나 덜어줄지 미지수이다. 해고된 후 생활비 걱정 없이 산다는 것은 창조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특히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일정기간 기획사나 연주단체, 극단 등에 고용되었다가 창작활동을 위해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려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생활비 걱정 때문에 그런 용기를 내지 못한다. 그러는 사이 이들의 창의력은 시들어버리고 창조경제의 불씨도 식어 버린다.

그러므로 실업급여의 지급조건을 무조건 까다롭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쉬운 해고의 대안을 마련할 바에는 지급조건을 까다롭게 하지말고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 그렇게 해도 해고된 사람의 생활조건은 열악해지는데, 지급조건마저 까다롭게 하면 해고자의 가슴에 연이어 못을 박는 일이다.

# 저소득층, 금연치료 공짜로 받는다

**소비자 119**

앞으로 저소득층 흡연자는 금연치료를 사실상 공짜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당국은 다른 계층보다 담배 피우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의 금연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이 금전적 부담없이 금연치료를 받는 금연 지원책을 곧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도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자는 금연치료 시행 병의원에서 금연치료를 받을 때 일반 흡연자와는 달리 진료 상담비와 약국방문비용을 내지 않고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받고 있다. 일반 흡연자는 금연치료를 받을 때 진료 상담료와 약국방문 비용의 30%를 자신이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자 흡연자는 일반 흡연자와 마찬가지로 최대 4주 이내에서 금연치료의약품을 처방받으면 총 처방약값( 18만6000여원) 중 상당한 금액(5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했다.

보건당국은 앞으로 저소득층 흡연자에게 이런 금연치료제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의사한테서 금연치료약이 아닌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 등)를 처방받으면 기존대로 일정 비율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저소득층 흡연자는 지금도 금연보조제를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에서는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금연정책에서 저소득층의 흡연율을 낮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저소득층의 금연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3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았다.

저소득층(소득하위 25%) 남성의 흡연율은 47.5%로 고소득층(소득상위 25%) 남성의 흡연율 36.6%보다 10.9%포인트나 높았다.

/이예진 기자 green@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처음처럼
부드러운 17.5도
가을을 물들이는
부드러운 한 잔
부드러운 소주의 처음, 처음처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